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人 方應謨 編輯人 金炯元 印刷人
發行所 朝鮮日報社

## 社說

### 長老敎系學校의 閉鎖問題 各界의 愼重한 對策을 要望함

一

오래 問題中에 잇든 平壤의 崇實專門學校를 비롯한 崇實中學, 崇義女學校, 光州의 須彼亞女學校, 全州의 新興學校, 紀全女學校等 長老敎系 二十數校는 明年 又는 來明年度부터 新入生募集을 中止하고 廢校를 豫定코 進行中이라 한다. 누구나 아는바와 가티 朝鮮의 私學中 多數한 學校는 基督敎系統에 屬하는것이오, 그中長老敎系에 屬하는것은 專門, 中學, 小學을 合하야 二十數校를 占하는 形便이니 이제 長老敎系 學校全部를 閉鎖하고 그經營者인 長老敎宣敎師들이 一齊히 撤退한다면 現在 收容하고잇는 數萬에 達하는 在學生의 動搖가 漠然한것은 勿論이어니와 將次 收容할 幾十萬 幾百萬의 學生들을 爲하야 實로 重大한 打擊일것으로서 오직 基督敎敎育界를 爲해서뿐아니라, 全朝鮮的 敎育界의 重大問題라 안흘수 업다.

二

長老敎系 宣敎會가 그敎育機關을 撤回하는 所信에 對해서는 曰可曰否를 論하려 안는다 또 이제 長老敎系學校 全部를 撤收한다고 長老敎宣敎會가 過去數十年에 亘하야 朝鮮敎育界에 貢獻한 그 功績을 無視하는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제 卽時 二十數校를 撤收한다면 그學校의 前途는 閉鎖그물것바게 업슬지니 이리되면 設使 撤回하고가는 宣敎會라도 當初設立한 本意에 어그러진 結果를 낼것이아닌가. 이미 數十年을 朝鮮敎育界로 위하야 犧牲햇다면 適當한 後任者가 날때까지 二年乃至 數年間 더 經營해야할것이라 밋고 또 바라는바다.

三

그러고 社會一般으로 보드래도 前記 二十數校가 一時에 朝鮮에서 閉鎖된다는것은 朝鮮敎育界를 위하야 重大한 打擊임은 말할것 업스니 此際 社會篤志家의 發憤을 바라는것이다 宣敎會가 撤收하는 理由 에는 그 自體의 所信如何에 依한 것이며 구타여 論하려안흐나 이며 宣敎會가 이 事業을 撤回하는以上 우리 社會는 過去 그들의 功績을 感謝하는 同時에 今後 그 後繼에 對하야 責任을 가질 義務가 잇다고 밋는다. 何故오하면 宣敎會가 過去 數十年에 亘하야 朝鮮敎育界에 開拓의 힘을 썻다면 그것은 오로지 우리의 힘이 이에 미치지 못하얏음을 意味함이니 이제 朝鮮人이 어느點으로나 相當한 實力을 養成하야 今日의 處地에 立한以上 우리는 當然히 이것을 引繼經營할 義務를 가젓다. 實際에잇서서 우리는 到處에서 學校의 動搖을 보고잇거니와 그誠意를 以上學校의 引繼에 深注한다면 全然 不可能할것이 아닐것이다.

四

끝으로 一言할것은 當局의 이 問題에 對한 態度다. 當局은 過去도 그러햇스려니와 이 問題가 이미 閉校의 運命에까지 至한 以上 諸校에 對하야 어데까지든지 閉鎖에 이르지 안코 存續乃至 發展할 方策을 講究할것이다. 卽現在 經營者에 對하야는 되도록 繼續하도록 한 引繼者가 나올 때까지 繼續經營할것을 慫慂할지며 不得已한 境遇에는 速히 後繼者를 經營 又는 繼承하야 存續하도록 해야할것이다. 이것이 朝鮮敎育界를 擁護하는 方途이다.

# 對中政策變更하면 排日運動은 自然히 消滅

## 航空連絡問題、朝鮮人取締等五原則에 對한 國民政府非公式發表

【上海七日發同盟】川越、張群兩氏會談에依하야 日中間에 이미原則的 合意가 成立되엿다고 傳하는데 所謂 五原則에 關하야 今日 中央通信은 가장 信賴할消息으로 國民政府의 態度는左와 如하다고 報道하엿다 此는 各案件에 對한 中國側의 最初의 非公式態度發表로서 『合意成立』에對하야 中國側이 各案件에亘하야 前提乃至交換條件으로서 主張하는 諸點을 表明하고잇다

一、航空連絡問題
平等互惠의 精神下에 이미同意하고잇스나 昨冬以來 北中各地에잇서서 我國의 領土主權에甚大한 脅威를與하고가튼 事態가 終熄지안는限 交涉의 進行을 期하기에는 困難하다고 認定한다 이態度는 現在도不變이다

二、中國輸入稅의規定
此는 內政上 問題로 政府가 定한 關稅는 元來 國家財政及 商工業 狀態를 斟酌하야 隨時適當한 調整을 할것으로서 國民政府가 關稅調整을研究하는데 當然히 密輸停止特히海關의 密輸取締의 自由는 가장考慮될것이다

三、朝鮮人의不法行爲取締
國民政府는 何國人임을不問하고 領土內에 잇서 非法行爲를함을 認定치안흐나 同時에 朝鮮人臺灣人其他日本國籍의人民으로서 日本勢力의援護下에 非法行爲를하는것은 日本政府自身이 取締할것

四、日本人顧問招聘問題
國民政府의 外國人顧問招聘은 政府의必要로 招聘하는技能에 依하야 決定되는것임으로 國籍如何를不問한다 日中關係가 好轉하면 中國이 自發的으로 日本의技術者를 顧問으로招聘함에 조곰도支障이업스나 이는外國政府로부터 要求할것이 아니다

五、排日取締
國民政府는 一切邦交敦睦으로써 人民을訓誡시키며 地方官吏도 亦是誠心으로 實行하고잇다 今後人民에越軌行爲가잇슬때 國民政府가 此를取締함은 勿論이나 人民의感情發生에는 반드시 原因이잇다 日本이現在의對中政策을 곤치여眞實로中國과提携한다면 一切의排日感情은 自然消滅되고 眞摯한友誼가 恒常兩國民間에存在할것이다

## 防衛委員會戰況發表

【마드리드六日發同盟】마드리드防衛委員會는 六日正午戰況에關하야 左와如히 發表하엿다 叛軍은 五日마드리드中央市街에砲彈을加하야市民에少數의死傷者를내이엇다 우세라地方에잇는 政府軍은 叛軍所屬의獨逸人二十二名을 捕虜로하는一方 空軍은 叛軍에屬한 伊太利爆擊機一臺를 射落하엿다 但마드리드戰線은 過去二十四時間에 大體로變化는업섯다

# 反日뿔럭問題로 駐日佛大使諒解를希望

【東京電話同盟】日獨防共協定日伊協定이 成立된以來 英佛蘇等을 中心으로한 對抗뿔럭의 結成이 旺盛히 宣傳되며 特히駐中佛國大使나잘氏는 中國을 同뿔럭에 引入하기爲하야 盛히活躍하고잇는旨를 傳하고잇섯는데 七日駐日佛國 大使館當局은 外務當局에 對하야 如斯한 流說은 全然事實無根으로 日佛兩國親善上 遺憾이라고 釋明을試하야 佛國政府의 態度를 明白히하엿다 卽駐日佛國大使館書記官베ー안스男은 카메렐大使의代理로서 七日午前十一時 外務省에 天羽情報部長을 訪問하고 中國으로부터의電報로 日本新聞紙上에 報道된바에 依하면 駐中佛國大使 나잘氏는 日本 獨逸、伊太利 뿔럭에 對하야 英米佛蘇中等의 뿔럭或은 反日的뿔럭結成에 奔走하고잇다고 傳하고잇스나 나잘大使는 特히 카메렐大使에 電報를寄하야 『日本에 如斯한 風說이 傳』하게된것은 極히 遺憾이다 自己는 職務上駐中各國大使와 往復한것은 잇스나 反日的謀略한 事實은업다 如斯한것은 日本政府도 遺憾일뿐아니라 日佛親善關係上으로 보더라도 滋味가업다 誤解를 一掃하도록 措處하야 달라는 經向을 傳하여왓다

고 誤解一掃에對하야 日本外務當局에 諒解를 求하엿다 此에 對하야 天羽情報部長은

佛國이 反日뿔럭結成에 奔走하고엿다는것은 信憑되지안호나 事實이라면 遺憾이라고생각한다 그러나 貴下의 說明에依하야 充分諒解한다 그러나 中國紙의 傳하는바는 中國側에 如斯한 空氣가잇다는것은 事實임으로 佛國으로서도 充分注意를要할事態에잇다고생각한다

고答하여 意見을 終了하엿는데 佛國當局은 中國에잇서서의 行動에對하야 特히充分한注意를拂하야 日本의諒解를求한것은 注目되다

## 故武藤軍醫監榮譽

軍醫監(第二十師團軍醫部長)故武藤太利三氏葬儀에 際하야 恐하압게도 七日午後一時勅使로서 矢島農林局長을 同邸에 差遣 幣帛을 下賜하압시엿다

# 政府態度를痛擊

## 愛好하는御婦人과結婚함이憲法上危機? 英共産黨議員의挪揄的演說

【倫敦六日發同盟】共産黨下院議員월리암·크레샤氏는 六日노퉁감에서 皇帝陛下께 御結婚問題에 對하야 演說하고 政府及 勞働黨首腦의態度를 痛擊하야 左와 如히述하엿다

政府及 勞働黨首腦의 態度는 自進葬六을 파는것갓다 我等에게는 國家는 重大한 憲法上 危機에直面하여잇다고傳하는데 問題는 皇帝가愛好하는 御婦人과 結婚하면 憲法이重大危機에 直面하게되고 愛好치안는人과 結婚하게되면 憲法이 安泰라고하는模樣이다 이러한問題와 數百萬의人民이不況에실달리고잇는問題와는 何者가 重大할는지 我等은 勞働內閣을組織하야 不況打開에 努力하는同時에 佛蘇 체코其他平和를愛好하는小國과 連히 平和條約을 締結하기를 希望한다

## 前勞働黨領首란氏 皇帝에御同情演說

【倫敦六日發同盟】前勞働黨黨首란즈베리氏는 六日夜 이즈링톤組合協會에서 皇帝御結婚問題에關하야 皇帝側에 同情을 表明하야 左와如히 演說하엿다

我等 英國國民은 皇帝陛下께困難한 個人的問題가發生한것을 甚히 遺憾으로여인다 我等은 國民及皇室雙方이 滿足할수잇는 解決案이 發見되기를 希望하야마지안는다

## 宮邸附近一帶嚴戒

【倫敦六日發同盟】英國國民一般은 에드와드八世陛下의 御退位問題를 中心으로 憂慮에 싸여잇는데 皇帝陛下의 在所포트벨베레아宮邸附近을 中心으로 雜沓을 憂慮하는國民이 右往左往하야 憂鬱한空氣에 싸여잇다 警官隊는 皇帝御警衛軍과 協力하야 現場整理에 當하여잇스나 自動車運轉手가 時時로 車를멈추고 宮邸를 瞻望하는等 附近一帶는 陰鬱한光景을呈하여잇다 夜에入하는同時에 寒風이불기始作하자 國民은不安裡에 各其夕餉을對하엿다

# 今米穀年度의 公定標準米價決定基準

【東京電話同盟】今米穀年度의公定標準米價를 決定하기 爲하야 米穀統制委員會는 今月中旬에開催될터인데 七日 日銀에서發表한 卸賣物價指數에依하야 公定米價決定의 基準이될 物價參酌價를 算出하면 如左하다 卽明治三十三年十月의 米價十一圓八十錢에 百分之二〇、三(一一、二二〇四(米價平準物價)를乘하고 다시 이에 二十九圓〇九錢이 되는데 이것이今米穀年度의 所謂物價參酌價가된다 그리고 最高米價는 物價參酌價의 上廻三割(三十七圓八十二錢)과 二割(三十四圓九十一錢)의 範圍로 農林大臣이適當하다고 認定한 價格과 家計米價三十三圓四十八錢(推定價格)을 對照하야 決定한다 그리고 最低米價는 物價參酌價의 下廻一割(二十六圓十八錢)과 二割(二十三圓二十七錢)과의 範圍內에서 農林大臣이 經濟事情 其他를 參酌하야 決定한 價格과 生産費、運賃、諸費用을 加算한 數字、二十五圓〇四錢(推定價格)의 範圍로 統制委員會가 決定의 原則으로삼게되엿다 家計米價及生産費運賃諸費用은 目下調査中임으로 正確한 公定米價를 算出하기는 困難하나 最高價格을物價參酌價의上廻二割(三十四圓九十一錢)으로하면 昨年보담 一圓七十一錢引上하게될것으로 結局 旣報한바와如히 家計米價를 援用하야 高價를 抑制하게되엿다 一方最低價格은 昨年의 下値二割에 生産費算術平均을 求하면 二十四圓十六錢이되여 六十錢을 引下하게되는데 現在物價騰貴의 趨勢와 農林當局의高米價政策으로 推察하야 結局 最高最低를모다昨年과 크게變함이업다고본다

# 上意下達의徹底 警察一體의實現

## 總督과三橋局長强調

南總督、三橋警務局長最初의 警察部長會議는 마침내 明八日 부터 開催되기로되엿는데 總督府第一會議室에서 招集된 今回會議에잇서서 三橋警務局長의 訓示는 半島警察界에 새로운 指針을 與하고 警察界의 刷新과同時에 上意下達、民衆으로하야금 警察을理解시키도록 半島警察界의 協調에 重點을둘것인데 右警察界의 刷新方針은

一、規律의嚴肅
綱紀의嚴格한 遵守를目標하고 監督을 게을리하지안코 警察界의 刷新을企圖할

一、警察과民衆
警察이民衆사이에 들어가야 니라民衆과가튼 心情이되여民衆으로하야금 警察그自體를理解시기게할

一、警察一體의實現
從來上意가 庶民에 徹底치안코形式的에不過한 感이잇슴을 是正하야 차라리 第一線의警察官으로부터 下意를 上達하도록 警察一體를 實現하야縱의協調를 緊密히할

一、刑事犯罪의防止
警察의一體實現과 同時에橫의連絡을 緊密히하야 殊히刑事犯의徹底的防止에努力할것을비롯하야高等、外事、保安、衛生各警察事務의 圓滿한 遂行을期할

等이잇고 또朝鮮滿洲一如의 具現에向하야 朝鮮滿洲警備上의連絡事項도 强調될豫定인데 會議는一層緊張을 띄게될것으로推測된다

## 戴冠式이延期되면 保險會社損害莫大

【倫敦六日發同盟】戴冠式이 延期되는境遇에는 保險會社損害는 一千五百萬磅에達하리라한다

## 人事·集會

▲孔聖學氏(開城蔘業株式會社社長)新任人事次來社
▲山階賢隆氏(開城蔘業株式會社取締役支配人)同上
▲曹龍煥氏(開城蔘業株式會社專務取締役)同上
▲倉島至氏(朝鮮總督府遞信局保險運用課長 朝鮮總督府遞信事務官)新任人事次來社
▲堂本敏雄氏(朝鮮總督府遞信副事務官)新任人事次來社
▲許丁默氏(三重醫院長)十日府內昌信町一三三番地에서 開院

## 夕刊後市況 七日

◆大阪 短期 氣配◆

| | | |
|---|---|---|
| 大新 | 六八〇〇 | (一〇低) |
| 鐘新 | 一八二三〇 | (二〇低) |
| 日産 | 七八三〇 | (一〇低) |
| 東新 | 一三九二〇 | (一〇高) |

◆橫濱 生糸 後引◆
當限 八六〇〇〇 先限 八三四〇〇
◆福井 人絹 後引◆
當限 六五九〇 先限 六三六〇

# 親密에서 敵對에 獨蘇關係의惡化

## 緊張한對立에誘導한眞因

뉴욕타임스紙 莫斯科特派員 월터·듀랜티 ①

最近 國際關係에잇서 顯著한 注目을 끌고잇는 事實로서 獨蘇兩國의 相剋이거의 戰爭의 爆發點에까지 이를듯 한緊張한 形勢를 들수잇다 랍파르條約에 依하야 惟一한 兄弟國가티 親密해보이든이 兩國關係가 一九三三年 나치스政權樹立以來 俄然犬猿間의 敵對關係로 變한眞因이 어데잇는가하는 點은 興味잇는 問題로서 以下는 世界的大新聞 뉴욕타임스紙의 莫斯科特派員월터·듀랜티氏가 近着한 同紙에가진에 쓴것을 全譯한것이다 듀랜티氏는 英國데일리·헬랄·그래프紙의 海軍記者로서 世界一로 自他共認하는 핵라바이워터氏와 比肩하야 蘇聯通으로서 世界的으로 自他共認하는사람임으로 相當한示唆가잇슴을保證할수가잇다(洪陽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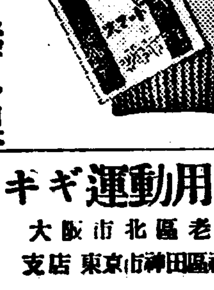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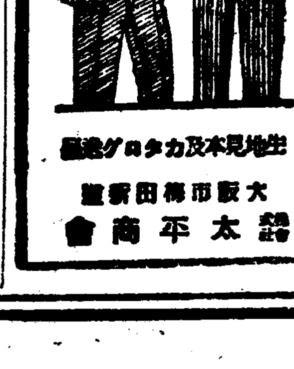
近世史上 가장顯著한 史實의하나는 歐洲大戰後數年間에 蘇聯과獨逸과의 親善및 協力關係가俄然 尖銳化한 敵對關係로 變한일이다 一九二二年春 『랍파르』에서 獨蘇條約이 締結된後의 十年間을 通하야 『獨逸은 相當한程度西歐와 親善關係를 保持』하라고 가르키는 『피스말크』의 忠言을 體現한것과갓햇다 莫斯科駐在의 獨逸大使 부록도르프、차우伯은 끄님업시 鐵血宰相의 金言을反覆하고 카 이렇게그周圍가 이金言을 적히지안는것이 戰爭 그自身의 主要한 原因의 하나는아니엿다할지라도 世界大戰에잇서서의 獨逸의 崩壞의 原因이엿다는것을 부르지저가지아니하엿든것이다. 이十年間 잇서서 蘇聯과 獨逸은 單히 密接한 經濟的關係에 依하야서뿐만아니라 血族的이라고도할政治的關係에依하야 結合되엿든것이다 兩者가다 自己들을—이것은 相當히 바른見解이라는立場에서—베르사이유條約의 犧牲者라고看做하얏다 兩國의 外交는 國際情勢에 對하야 大體로 共同의 方針을取하얏고 또한 事實에잇서서도 兩國關係는 一九二三年가을『함부르크』의 共産黨騷擾의 當時색소니아에 일어낫든 共産黨 首領『막스홀즈』의 指揮下에서 演行된 短期의 恐怖政治밋이보담 一二三年後에 莫斯科에서三人의 獨逸人이 反動的테로行爲를 行하야 一時世上에 센세이슌을 이르켯든 事件을除하면 實로文字그대로 親善그것이엿다

그뿐아니라 兩國間에는 輕微치안흔 軍事的諒解가잇섯다는것은 모든方面에서 보아서首肯된다 獨逸人技師及 專門家는 싸베르의 軍需品工場 及兵器製作所에서 큰役割을하고一九二五年인가 二六年에는 露西亞人에게 毒瓦斯의 製法을 敎授하는일에 從事하여든 獨

逸人數十名의 氏名을 列擧한 極秘 細密한書類가 莫斯科駐那의 一外國使節에依하야 發表되엿든것을 筆者는 記憶하고잇다. 事實 그氏名과 俸給과設立된 各工場의 位置等은 너머나 完全하게 詳細히記載되여잇서 或是 蘇聯에 敵意를가진 國家의 秘密探偵이엿든 드러낸것이 아닌가하는點도잇스나 엇더튼 이러한事實은이 方面(軍事上)에잇서서의 蘇獨兩國의 協力이 如何히 重視되엿섯다는것을 表示하든것이다 또 獨逸職員錄에 飛行將校로 記載되고잇든 某某大尉가『特別勤務中生命을 일엇다는것과 또同大尉의 死의原因이되든事故가 露西亞國內에서發生하엿다는 事實이 그後에 알려젓다는것을 報道한 簡單한 記事가 獨逸新聞에 揭載된때에 얼마나 큰센세이슌이 捲起되엿섯든가 하는點은 이즐수업는일이다. 이事實은赤軍이 單히 獨逸人敎官을 招聘하얏을뿐만아니라 獨逸人이 露西亞의 現役將校名簿中에編入되여잇섯다는것을 示하는 確然한證據이다 또한 獨逸은 歐洲諸國中 最初로 莫斯科에大使館附武官을 보낸 國家이오 또後年 東京과 倫敦의駐在武官이되고 다시 蘇聯極東軍의 重任에 就한 卓越한 武人부르나將軍과가튼 蘇聯의 高級武官이 달은 엇더한 國家의 武官보담도 먼저 伯林에 駐在하는것을 許諾한 나라이오 또 兩國은 相互間 高官이 頻繁히 往復하얏스니 그中에는 獨逸國軍의 首腦엿든 함머슈타인과가튼 사람도 赤軍의 演習을 觀戰하고 또가장 親密한 歡迎을바덧다 이뿐아니라 獨逸은 露西亞가 他의 어느나라에도 許치안흔 領事交換의 便宜를 밧고 伯林에 잇는 蘇聯通商代表部의 主要部員은 互惠的便益을 享有하얏든것이다 또한 獨逸市民은 利權及 蘇聯과의 取引上의優先權을 가젓섯고 또 蘇聯國內에 商業上 또 遊覽目的으로 언제든지 出入할수 잇는 査證을 밧는 特權—他國人에는 蘇聯政府가 絶對로 拒否하는 特權—을 엇는 便宜가 賦與되엿든것이다 이보담도 더 重要한것은 獨逸이 蘇聯에對하야 當時 어떠한 國家도 考慮치안흔 程度의 金額과 長期間의 크레짓트를 設定하야 一九二五年부터 一九三二年까지의 間에 四億馬克의 多額에 達하엿다고하는것은 蘇聯의 獨逸에 對한 債務는 一九二九年—三二年間에 總額 十二億 五千萬馬克에까지 達하엿다는것도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寫眞은 反蘇演說하는 히틀러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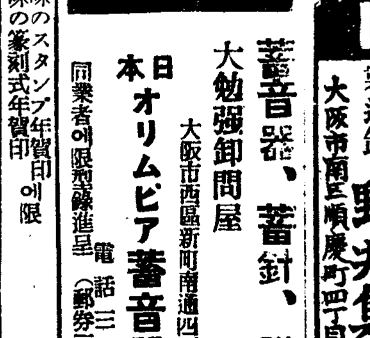

冬物運動服品揃
卸造製裝服般全

カタログ進呈
良品仕入은商店의信用
躍進! スポーツ日本 躍進! ツキギ服裝
ツキギ運動用品本舖
大阪市北區老松町
支店 東京市神田區神保町

世界で一番良い
萬力作業服

カタログ進呈 生地見本及
大阪市梅田新道
發賣 太平商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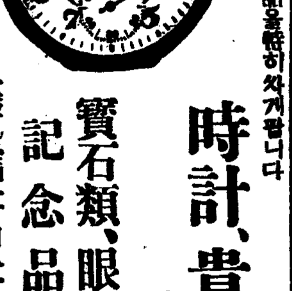
精米機ポンプ
發動機噴霧器
(カタログ送呈)
大阪西區阿波座上通一
有光製作所

機械ト工具製造卸
大阪市西區立賣堀北通四丁目
合名會社 八木機械工具店
商店工場ニ限リカタログ呈
電話新町 二六〇 四番
振替大阪 三九二 四九番

年賀ゴム印
各種ゴム印販賣店募集◎利益多大賣行き盛なり
型錄進呈(郵券二錢要) 大阪市南區鍛冶町六八
ゴム活字及各種ゴム印 製造元 吉川商店
電話南 二二〇九番 振替大阪五五九一番
年賀狀은目下(趣味のスタンプ年賀印)全國的流行의(趣味の篆刻式年賀印)에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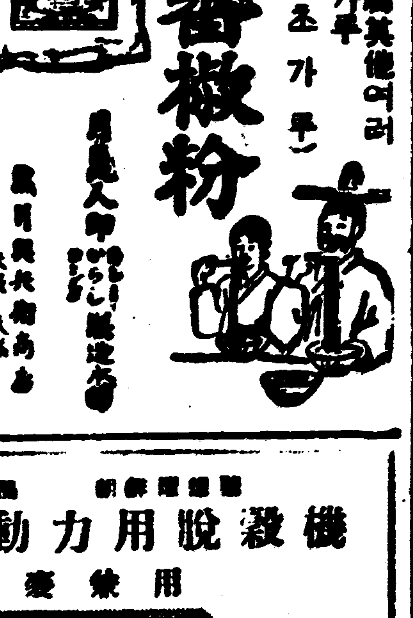
オリムピア 蓄音器

蓄音器、蓄針、附屬品
大勉强卸問屋
大阪市西區新町南通四丁目六
日本オリムピア蓄音器商會
電話 三二九四番
同業者에限型錄進呈(郵券二錢要)

紳士向 ワイシャツ カッター
品質優良·柄行嶄新
絶對格安提供!
申込次第柄見本營業案內進呈 シャツ·カッター附屬雜貨
製造卸 大阪市南區順慶町四丁目八三
野井集商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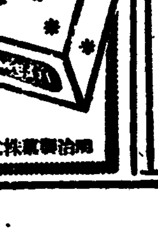

時計、貴金屬
寶石類、眼鏡、銀器
記念品 메다루 メタル 다이야몬드 ダイヤモント
大阪九条通二丁目八一
仲庭時計商店
電話西 四七〇七 二〇〇一番
商報送呈 郵券五錢要ス 振替大阪八壹一四一番

東洋에서第一조흔물건을싸게팝니다
(印入專門)
タオル
ハンカチーフ
フロシキ
各木綿
(商報進呈)
大阪市北久太郞町心齋橋筋
植田仁本店
電話船場 四〇四〇

食料紅 オブラート バター 藥種 香料
西本商店
大阪市西淀川區大仁本町二

含蓄椒粉

밀국수·소바·호떡其他여러가지반찬에고초가루
(고초가루)

冬物 東洋一大商業 廉代進呈
名古屋市東區千種通今池電停前
合資會社 加藤營業所
電話東 四八二九番
振替 名古屋二八九番

明治の菓子
贈答品에는

明治製菓株式會社

간질
驚風腦病으로참말어려운病이다適當한藥으로治療하시옵소서 本位의良藥이잇스니 弊堂에예부터 特效가잇는 내용을 알리오니 大阪市浪速區役所北 大福堂

機穀脫用力動一마야
用 麥搗
能率絶大 機械堅牢
撰別優秀 使用簡易
型錄進呈

元賣發賣 京城府
總代理店 山岡發動機京城支店

ニ ポマード ランランポマード
포마-도
그대들을 아름답게 빗기고 하는

# 美人傾國譚

## 英皇帝의 御婚儀問題와 麗人심프슨夫人의 半生

NO・1

# 米國胎生의 女性 倫敦社交界의 評判美人!

### 最近엔 皇帝의 側近에서 起居를 함께 해

한울에 나는새라도 떠러트릴 대영제국의 제위(帝位)를 헌신짝가티 버릴것인가?그러치안흐면 결혼을 단념하고 제위를 보존할것인가?이제야 영국황제 에드워드八세폐하의 일동일정은 당사국인 영국은 말할것도업고 전세계인류의 이목을 한곳에 총집중하고잇다 이에드워드八세폐하로 하여금 제위까지 걸고서 결혼하압시려고하는 총애(寵愛)를 한몸에 밧고잇는 미人자그대로의 경국지색(傾國之色)「심프슨」녀사는 과연어떠한 녀성일가?이녀성이 거러온 인생행로를 뒤저보기로하자

×

「심프슨」부인은 미국태생이다 그는 일천팔백구십오년에 미국「메릴랜드」주「볼티모아」시의 평민중하사관「워린스・윌필드」의 맛딸로 태어난 금년마흔한살된 중년 가인 이다 어렷슬때부터 평판이 놉든 미인으로서 일천구백십륙년에 미국해군대위「윈필드・스펜서」씨와 결혼을 하엿스나 그들의 사이에는 일년이 채못되야 갈극이생겨서 별거생활을 하게되엿다 마침내 그는 일천구백이십오년에 정식으로 스펜서씨와 리혼하고 [illegible]의 [illegible]로서 전영국 [illegible]장교로서 현재해운(海運)「쿡로커」를 하고잇는「어네스트・심프슨」씨와 친밀한편거를 맺저 드되여 일천구백이십팔년에 그와재혼하야 그후「런던」에 사랑의 보금자리를정하고 사교계에 발을드듸기되엿다 원체평판이 놉흔심프슨부인은 곳런던사교계의 총아가되야 그의집에는 신사숙녀가 밤마다 모히여「칵텔」의잔을주고 밧구기를거듭하엿다 그들신사중에는 프린스・어브・웰스(지금에드워드八세)전하 도끼간히 나타낫섯다

이때부터 시작된관계는프린스・어브・웰스가 에드워드八세로서 대영제국의제위에 오르심을따라 점점 가속도로 진전되야 그는 자긔남편을 돌보지안코 항상 황제의측근에잇게되야 금년여름에도 황제께압서「아드리아」海에 피서하섯슬때에「요트」를 가리타고 동행하엿스며 또수주간동안이나 [illegible]게되자 별안간 [illegible]되야 지나시월에 그는 심프슨씨와 리혼을하고 지금 독신으로잇는중이다

×

에드워드八세폐하와 심프슨녀사와의 결혼문제는 그간 정부내에서는 벌서부터 문제가되여잇섯스나 표면화하게되기는 지난 일일「브랏드포드」의 「브랜드」승정(僧正)이 교회구(敎會區)회의에서 황제의 사행(私行)에 관하야한연설이 지방신문에 굉장하게 게재된때부터이다 문제가 드듸여 표면화되자 「볼드윈」 수상은 각의를열고 신중협의한결과 이일밤에「버킹감」궁전에 참내하야 황제께배알하고 정부는 심프슨부인과의 결혼에는 반대이뜻을 주상하엿다 볼드윈수상의 반대의사표시가 발표되자 각자치령(自治領)에서도 정부의 즉수상의태도를 지지함뿐더러 성공회(聖公會)부란트승정도 반대이뜻을 주상하야 에드워드八세폐하는 고립무원하시게되엿다 문제가 점점 황제의진퇴문제까지밋치게되매 심프슨부인은 돌연 런던을떠나「칸」시로가 방금그곳에 머물고잇다 그 전하니 그가문제의중심인인 런던을버서난 리면에는 어떠한뜻이 숨겨잇는지 우리로서는 상상할수업는일이다

(계속)

사진은 마상에안즈신 영국황제폐하와 문제의 심프슨부인

# 年末景氣打診

# 商街엔 홍정이 줄고 不渡手形만 激增

### 凶作과 農村不景氣의 影響

## 舊歲暮의 期待도 薄弱

▼…금년 이해도 이달로써마즈막이다 거리에는『세모대매출』의 기빨이 찬바람에 펄펄날려 손님을불으고 잇스나 금년은 추수때이래 홍정이적더니 서답 대목이 와도 상가는 의연히세말경긔가 보히지안코 쓸쓸하야 이대로가다가는 서답 대목은 더욱암담할듯경이 버려지지안을까하는 념려조차업지안타

▼…그리유를든다면 첫재 금변뎐홍에는 전고에업는농수해를 만나 허다한 인명과재산을 일흔동그중에서도 전답의 손실이만헛든것 풍재、풍수해에 뒤이어 곡식에 병해(病害)가심하엿고、또봄철에는 한재(旱災)까지 잇서금변은 쌀농사에도 전변에비하야 일할내외나 감수를 본외에잡곡도 콩이니모맥이니 모다일할내지 일할오분나 감수되엿고 목하(棉)는 삼할이나 감수를보앗다이모양으로 금변의 농사가크게 흉작을보고나니 본시농업이 모든수입의 대본이 되여 잇는 조선사람에게는 지주나소작인을 물론하고 궁색하여질것은 더말할것도업다 경향을 농업중에는대종인 쌀농사가 흉변이엇다는것은 무엇보다도 큰타격이엇는데 더욱이 금변은 쌀에대해서는 일본내지가 큰풍변이들어서 자연편리(自然的)로 큰풍변이들어서 [illegible]까지 하락하야시세가 업게될뿐로 농업에의한수입은 크게줄어들엇다

▼…이모양으로 농업에의한금전수입이 줄어든외에는일반의 구매력(購買力)이격감하다하는조선의경긔가 풀이죽게됨에따라도시의상가에직접영향이 밋게되는것이니 추수이후세말의한대목을기다리고잇든 각도시의상점은 이때문에홍정이 부쩍줄게 되는것이다 어느지방이나 사정은대반가튼중에도 남조선이 더심하고 중부가그다음으로는 가는데 서울은 역시중앙지대로 각지의물화가 들고나는만큼 그영향은현저하다

▼…그영향이 현저히 나타난일례를든다면 경성에는 근자에부도수형(不渡手形)이 만히난다는것이다 지난십일월중에는륙십팔인으로 전변에 비하야 약배나 되고 그중에는 조선사람이 삼분의이상이라한다 그러고 지난 시월중상순일에는 하로에 아홉건이나 되엿다고하니 상가가 얼마나 군색하야 금전의융통이 어려운 상태에 잇는가를 짐작할수잇스니 이런것이 곳금변의 흉작에결하야곡가는 올으지안는다는 리유의 전면적영향이라할것이다

▼…직접농사를짓지안는도시사람들은 어떠가 물론일반적으로경긔가 조와지지안는다면그다지 관계잇지안켓지만 그러나 결은 안밋는곳이 업시 도시인에게도 간접으로 미치는바이지만은 그보다도 근변의 사정을 살피면 일반 잡화기타의 일용품은 일이변 이래에 약이할가량이나 올랏다 그러나 일반임금이나 월급은 조금도 올르지안핫다 그때문에 도시인의 구매력도 점차 감퇴되어가는것이 사실이어서 그영향은 역시 상가의 홍정을 도음는 재료가 되지안흘수 업는것이다

▼…그러나 상가의 말을듯건대 일반의조건은 그만큼 불리는하나 아직은 세말까지 좀더 시일의여유가잇고 또 조선인층은 구변말이 도잇슴으로아직 크게 비관할것은 업다고한다 또금변은 흉변이것만은 사실이나 추수가 느젓든것과 또 현재 쌀갑이 떠러저잇기때문에 농촌에서 풀려나올 돈은 좀더 시일을 기다려야할모양임으로 아주단념할정도의 비관까지에는미치지안는다고 보는편도업지안타 그러나 금변 세말상가는 자못 쓸쓸한것만은 사실이다

## 本町四丁目에 火災

칠일오후두시사십분 본정(本町)사정목일백삼십이번지 이불장사하는 중촌금장(中村金藏)의집에서 출화하야 불은 순식간에 그집어용한차를 전부태워버리고 가튼세시분경 겨우 진화하엿다고하며 손해는 약사천원가량이며 원인이라는 소화부정에서 취조중이다

# 病고치려갓다가 不具者되엇다고

### 擔當醫師걸어慰藉料請求訴

흥매려다가 후부천결으로 병고치려다가 생병신이 되엿다고 의사를걸려 손해배상청구한로인이잇다 인천부룡운정(龍雲町)륙십일번지 박일병(朴日秉)씨는 그곳중정(仲町)사정목사번지 천구(川口)병원장 천구어부(川口漁夫)씨를상대로 손해배상및 위자료이천사백사십원청구소송을 경성지방법원민사부에제긔하엿는데 소장을보면 원고는 지난일천구백삼십[illegible]년 [illegible] 걸리여 피고병원에가서 진찰을 바든다음 그병원에서 근무하는 실습생모에게서 주사를맛다가 너머나아프다고하매 실습생은 중지하고 천구씨자신이그대로 그주사를 계속하야 결국 그주사한대를맛고 집으로갓는데 주사한 자리가동시 아프기시작하야 피고병원에 전화로 통지하엿든바 피고병원에서 외과의라는 회전(會田)모를 보내엿슴으로 그에게서 수일동안 치료를 바덧스나 종시 낫지를안허 할수업시 그달십사일에 피고병원에 입원하고 올흔편팔에 전후여섯곳을 수술한끄테 낫기는 하엿스나 팔꿈치를펴고 오그리고 할수업는불구자가되고 말어서 원고는 육체상 정신상비는 고통이 여간만흔바아니나 손해배상급위자료로 적당한 이천사백사십원을 내라는것이다

# 元町强盜에 七年役言渡

부내원정(元町)이정목 굴승차(堀勝次)의 담배가가에와 원정삼정목 우편소에 연거퍼 침입하엿든부내 대흥정(大興町)륙십륙번지 단흥완(段興完)에 관한강도및 강도상인피고사건언도공판은 칠일오전 열한시부터경성지방법원 형사부 제사호법정에서 산하(山下)재판장주심、김(金)검사관여미테 열렷든데 재판장은 검사의 구형대로 징역칠변판결을내리엿다

# 年末警戒 十日부터開始

【平壤】년말이박두해지자 사람의마음으로 어수선해지게되여 유독범죄방면뿐아니라 여러가지사고를일으키게된다

이때문에 평양서에서는 년말특별경계를 실시하여얼마남지안흔동안은 사고업시 지나도록방칭을 정혯는데 평양서에서는강도사건의범인 강도살인사건의범인이 체포되지안허어 악일개월전부터 대경계를개시햇든만큼 금변의 년말경계는 비상경계(非常警戒)라고 명칭을곳치어 실일부터 년말년시에 서원총동원으로 비상경계를하기로 되엿스나 경계중에는 전서원이 무장을하고 상점가(商店街)금융가(金融街)의일대경계는 물론 야간에는 통행자동차 보행자를 불들고 심문하는경우도잇스리라한다 또고등계(高等係)사법계(司法係)의 사십여명형사들로 별동대(別動隊)를조직하여 복전(福田)사법주임지휘하에서 어두운 거리를 삿삿치경계하여 불심자동자의검문 범인검거에진력 하기로되엿다 이밧게대동서(大同署)와리천지경찰서에서는 보안조합(保安組合)을 조직하여각부락마다 엄중한경계를 하기로되엿다한다

# 怪變! 또가물거정

# 秋麥播種이不能

## 盈德地方에秋旱이太甚

【盈德】경북영덕지방에서는 금년가을풍수우이후 근사개월이나 되도록 한번비가 나리지안허서 채소기타과수등에도 피해가만헛지마는 특히일반농가의 농량(農糧)에 큰도음이될 추맥(秋麥)에 대하여서는 파종(播種)을 못하엿든바불일내로비가나리지안흐면 추과경매은 절망이라고하야 일반농가에서는 우려중이라고한다

# 平原署에서 大量檢擧

### 靑年多數를引致取調

【平壤】평남도고등과(高等課)에서는 그동안 관내아홉경찰서를 지휘하여 좌경분자(左傾分子)백여명을 일제검거하고 맹렬한주궁을계속하고잇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수일전 평원서(平原署)에서는 서원을 비상소집해가지고 평원군 조운면송천리(平原郡朝雲面松川里) 해암(海岩)이라고하는김용훈(金容勳)과 김천일(金天一)외십수명을 검거하고 아연긴장한 가운데서취조를 진행하고잇다

일체를 비밀에부티므로 상세한 내용을 알수업스나 탐문한바에의하면 김용훈의 과수원(果樹園)안에잇는 외따른집에 부락의 청년이십여명을 비밀히모아노코 적색농민조합(赤色農民組合)을 조직할 준비교육에 몰두하든것이 발각된모양이어서 취조의결과는 주목되고잇다한다

# 朝鮮人辯護士의 滿洲開業을交涉

### 移住同胞의便宜圖謀

총독부 외사과에서는 만주국에대하야 조선내의 변호사자격자가 만주에가서 개업할수잇게교섭을하고잇다

만주에 이미이주한 백만조선인외에 장차대량적이민에 의하야 재만조선인의 격증이 예상됨으로 조선인으로서 만주국내에서 변호사개업을 하려는 지망자가 생길것인데 조선에서는 자격이 잇드라도 만주국에서개업하려면 현재에는 다시 만주국의시험에 합격하여야될터이다 그럼으로 총독부에서는 만주국과교섭하야 일본내지나 조선에서 변호사를개업할수가잇는자격자이면 만주에가서 개업할수가 잇게하며 또조선변호사가 만주에가서 변호사무를 취급하야소송대리를 할수잇게 편리를도모하여달라고 방금 주만대사관을 통하야 만주국과 관동군과교섭중이라한다

# 京城遞信分掌局

## 簡保成績優秀

간이보험(簡易保險)신계약모집에 활발한활동을 계속하고잇는 경성체신분장국(京城遞信分掌局)에서는。농작물이 풍작이되지못한데다가 풍수해로 말미암아 일반경제계가 불경긔한데도 불구하고 륙월일일 체신국(遞信局)에서 분담된 사만륙천원의 책임액을 다른분장국(分掌局)에 솔선하야 성공하고 지난십이월륙일로서 그분장국관내 이백륙십륙개소의 우편국소는모다 할당액(割當額)을 완성하엿다고한다

# 曺永恩君來社

### 빅타ー會社에 入社人事次로

세게적음악가 삼포환(三浦環)부인에게 그천분을 인정바든 진남포(鎭南浦)태생 조영은(曺永恩)(二一)군(금변본사주최음악경연선수)은삼포부인의 애제자가되는동시에 "빅타ー"축음긔회사에취입(吹込)을 하기위하야 동경으로가는 도중칠일에 입경하야 인사차로 본사를찻저왓다

# 담배가게에서 거스름돈詐欺

년말경계망을뚤코 십이일에들어서 첫거스름돈 사기사건이 시내동에서 판내에서 발생하엿다 일에날 저녁다섯시십오분경되여 시내리화정(梨花町)백이십사번지 압길에서 놀고잇는 그동리사는 김병소(金丙昭)(一〇)라는 소년에게 나히이십세되어보히는 사나히가 나타나 동정백십칠번지 박선숙(朴先淑)담배가게에 가서 「조일」담배갑을 가저오라고하고 동정에서는 리경옥(李景玉)이란 아이에게 담배를 주어보내드니 십원짜리가잇스니 거스름돈구원이십오전을 가지고 오라고하야 바더쥐고는 그냥 도망하엿다는것으로 동서에서는 범인인한를 이리저리 다시나지안토록 범인을 엄탐중이라한다

# 大同署에서 國際密偵逮捕

### 년령이십오세의괴청년

## 下車即時로引致取調

【平壤】대동서(大同署)에서는수일전 만주방면(滿洲方面)에서모국과 기맥을 통해가지고잇든 국제「스파이」가 조선내지의 중요한지로서 비밀히 입국하엿다고잇다는 정보를접하고 긴장해잇든중 일전서평양역(西平壤驛)에서 하차하는 년령이십오세되어보히는 괴청년을 검거하고 극비밀리에 취조를 진행하고잇다

아직 자세한내용은 알수업스나 옹외일수업는 증거품이나타낫고 조선의사업 군사방면의 조사등 보의 중대사명을 띄고잡입했든것이라한다


# 警告！

大小不正賣藥商等이 奸惡한 術策을써서 騎虎之勢로 全鮮을 跋扈跳梁한다、그中甚한 者는 弊支社代理店、特約店마다 新聞紙上에서 보고 쪼차 다니며 僞造、無名賣藥을가지고 金錢을 詐取하며 또 別別욱두가지 꾀를 내여거짓말 推奬文을惡用하야 計劃的大○○를 敢行하는者도 만으며 또는 廣告를 만히못내는者들이 不正한 外交員들을 地方으로 派遣하야、弊社의 中傷誹謗을하면서、甘言利說로 愚昧한 地方人을속이는者가 만타 또 弊社僞造品을 가지고、싸게파는者도만타 눈뜬봉사는 말할것도업거니와 눈먼봉사는 十分注意하지안으면 欺狐에게 홀려갑니다 又그欺狐等의 權謀術策에너머간、走狗等을可憐히 녁이는同時에、各種弄絡에 빠지는얼이만흠으로 惻隱之情을禁치못하야、玆에警告注意하나이다、「무슨물건이든지 살때는、적어도 四五年을 繼續的으로 크게만히、광고를내는데가아니면、絕對로 信用마시오」또確實한感謝狀이업스면 다ー거진말노알아주십시오 「洋藥은」先進世界各國의 醫學博士와藥學博士가 公認한 藥이오니 洋藥을誹謗하는 者들은 남의 藥을中傷하는데 지나지안습니다

京城西大門口入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電話光㊂三三四・振替京城四九五〇番

## 芳山町에 棄兒

오늘 오후여섯시 내방산정(芳山町)사번지의 이십이호 리창오(李昌五)의집 대문아페 더러운보에싼 어린아이를 내여버리고간 사람이잇서 곳본정서원이 조사하여 본결과 조선기생아히로 부순가량 먹어보이며 세상에나온지 근백사람이전거에 리창오의집에 어린아이하가업는것을알고 길러달라고 내여버리고간 모양이라고한다 그리고 소화십년 사월십사일이라고 생년월일(生年月日)을 써놓고 조회조자이 엇서다고한다

# 延禧普明校에 福運

## 朴女史의 二千圓寄附筆頭로 篤志의 義金이 續到

부내 북아현정(北阿峴町)일번지의 이백칠십사호 박만행(朴萬行)(六○)녀사는 오지음 신촌정(新村町)에잇는 연희보명학교(延禧普明學校)에 현금이천원을 긔부햇는데 녀사는 적수공권으로 자수성가를해서 약삼만원의 재산을 모하가지고 근근히 살어오는터이나 일부공익과 자선사업에 힘써오든중 적귀 연희보명교가 가난한집안자녀들의교육긔관으로서 경영난에 빠저잇다는말을듯고 그가튼거액을 긔부한것이라한다 그리고 박녀사밧게도 ▲金三百圓朴基默女史 ▲金百圓崔三禮氏 ▲金百圓吳元根氏 ▲金五十圓無名氏 등의 긔부가잇서 그학교의 지반은 날로 튼튼해간다고한다 (사진은 박녀사)

## 富川通運組合 通船一隻購入

【仁川】부천통운조합 (富川通運組合)은창립된지사년이래 제일제이통운환(通運丸)두척을가지고 부천군도서(島嶼)부면의교통사업에 힘써오든바 강화외포 (江華外浦)까지의 정기통선을하든것을매일왕복하려고 할뿐아니라기타항로에도 교통이 빈번하여짐을따라 아동조합에서는 팔천원의 경비를들이어 통선한척을 더구입하기로 결정되어 동조합장 김완수(金完洙)씨는 지난사일에 문사(門司)를 향하야 출장하엿는데 그선척의 도수는 사십톤이라는데 로통선의 개시는 명년일월부터 되리라한다

## 집나간사람들 차저달라哀願

최근동대문서에는 아래와가튼 수색원이 계속하여 들어왓다

【其一】원서정(苑西町) 십삼번지의일 서정균(徐廷均)씨의 둘재아들 재룡(在龍)(一八)이는 지난 초하루날 오후두시쯤되여 나간채 도라오지안는다고

【其二】례지정(禮智町)이십칠번지 김원식(金元植)씨의 맛아들 재창(在昌)(二○)이는 사흣날밤열시쯤 재래약(在來藥)을 누-마-크로 팔러 나간채 행방을 알수업스며

【其三】부외양주군미금면 도농리(楊州郡渼金面陶農里)이백구십구번지 강근식(姜根植)씨의족하 대득(大得)이는 나흣날새벽다섯시쯤되어 우차에 베스집을실코 서울로떠나간채 종적이끈허젓다는것이며

【其四】동군동면 지금리 (芝錦里)삼백사십구번지 김경회(金敬熙)씨의 며누리 한흥악(韓興岳)(二○)은 구차한지정살님을 도웁따고 지난사월부터 시내수은정(授恩町)삼십구번지에 와잇다가 지난스무하로날 동정이십구번지 제유소(製油所)에 일하는 김모(金某)라는자에게 꼬여갓스니차저달라고

【其五】관수정(觀水町)오십구번지의일호 문영국(文永國)씨의처 김귀련(金貴蓮)(二七)은 사흣날오후 집을나서 남편의 저금십팔원과 옷가지를가지고 내빼버렷다는등 가지가지의 내용이라고한다

# 鹿島丸事件再燃

## 遭難船의 會社側은 無事塗糊를裡面畫策

【仁川】지난시월이일 선객칠십명을 팔미도(八尾島)근해에수장지낸 록도환(鹿島丸)사건은 사건당시에 계속보도한바와갓거니와 그후의유족에대한 위자료문제가 여하한해결을 보여줄지가 가장주목되든바 그후 사법관의 취조까지 바뎃스나 아직도사건의 창본인 인천긔선회사 (仁川汽船會社)측에서는 한등의성의를 표하고잇지안흘뿐아니라 극비밀리에 사원을파견하야 유족을호별방문하야 날인(捺印)까지바든후 사망자일인에대하야 최고일백오십원 최저삼십오원의 위자료를부담하야 별서사십여명의선객사망자에대한 해결을지엿다는 소식이전하고잇스나 과연해사심판을압두고 동회사측의 해결책이 타당할는지 따라서 동사건이 칠십명의 희생자를내인사건이만콤 당국자로서는 이를여하히한결을 지여줄지 세상의주목을잇끌고잇슬뿐아니라 사람하나의생명갑시 삼십오원이란 참으로언어도단의사실이라 유족은 하여간 사회의여론이 나날이 노파가고잇슬뿐이라한다

해액은 수백원에 달할모양이다

## 一年間七百餘件 仁川署管內告訴事件

【仁川】약진이천의발전과한가지 동귀하고잇는것은토지가격인바이에딸어 각종가상배와 악덕"뿌로카"들의울이적지안라 이제 인천경찰서의 일년간고소사건을 조사하건대 금년일월부터 금월까지 칠백여건으로서 사건의종류는 사기횡령등이최고를점하고잇스나 거게가토지를중심으로하야 제소된것인바 이것은 인천은토지사건고소의총수시대를 보여주고잇다한다

# 惡의魅力에捕虜 留置場을自願!

## 阿片떼거지爲하야 일부러竊盜질

맷돌인 아편을끈흐려고 애를쓰다못해『법의그늘』을로나띄여보려고 절도를하고 경찰에자수한사나히가 잇다! 칠일아츰동대문서 형사실에는 홍치구두를 전당포에 너흔돈이원오십전을 가진 사나히하나가 나타나 류치장에 너허달라고애원을 하엿다 이사나히는 시내 신당정(新堂町)이백삼십사번지의 이호에거주하는 강회득(康會得)(三○)이란 자로 석달전부터 아편을 먹기시작하엿스나 요사히 그잘못을 깨닷고 암만끈흐려고 애를썻스나 도모지 끈흘수가 업서서 차라리 류치장안에서나 끈허보려고 결심하고 시내 모처의 일호김재진(金在晉)음식점에들어가 홍치구두한켜레를 훔처 전당포에너코 그돈을가지고 자수하엿다고한다 시내에서도 이른바처음보는자 의 처음이라고한다

## 運動競技

### 朝鮮氷上聯盟 競技日程

朝鮮氷上競技聯盟에서는 五日聯盟事務所에서 委員會를 開催하고 今年度 競技期日을 다음과가티 決定하엿다

▲朝鮮神宮奉賛競技大會
期日…昭和十二年一月九日(土)十日(日)
場所…淸凉里 링크
種目…스피드, 하키, 피거

▲京城아이스하키-聯盟리-그戰
期日…來十二日 午後六時半부터 三中井聯盟事務所에서 主將會를 開催한後 協議決定할터
그리고 今年度新規參加希望團體는 當日까지 申込할것
場所…總道, 大學豫科, 延禧의各링크에서行함

# 未納月謝가 九分

## 總收入十二萬九千四百七十圓 市內廿四普校의 統計

경성부에서 시월말일 현재의 집계에의하면 경성부내의이십사개의 공립보통학교와 일개의공립상업전수학교(商業專修學校)의 수업료 수입성적을보면 그수입액은 십이만구천사백칠십원이며 그연인원(延人員)은 십팔만이천팔백팔십명이고 미납액 (未納額)은 구천일백륙십이원사십전으로 그인원은 일만사천팔백이십륙인이엿다 조정액(調定額)총계 십이만구천사백칠십원전에비하면 약구분의미납이 되여잇는것이다

# 開館以來使用 六百卅八回

## 府民館의 利用狀況

경성부민관(府民館)은 사월에 개관한이후 십일월까지 여섯달동안에 그사용료의 수입총액은 이만팔천사십사원이십전으로 제일처음으는 이천이백사십이원구십전(사월)이엿스며 제일만흔때는 오천칠십삼원오십전(칠월)이엿다 평균매월삼천오백여원식 수입된세음이다

전부를사용한것은일회 대강당(大講堂)은일백칠십이회 중강당은일백칠십일회 소강당은일백오십일회 『다다미방』은 팔십팔회 특별실(特別室)은일회 집회실(集會室)은오십오회 부속실(附屬室)은 일백칠회 담화실(談話室)은 구십사회로 여덟달동안에 한게 륙백삼십팔회사용되엿다

## 盜賊도 외골수로

### 前列車內物品販賣人 또다시列車속에서竊盜질

지난여섯날저녁때부내룡산서배석(白石)형사가 경성역(京城驛)일이등대합실에서 행동이수상한 젊은이한명을 붓잡어다가 취조한결과 이사나이는 얼마전까지 긔차안에서 물건팔든 경긔도룡인(龍仁)태생 김한철(金漢喆)(二二)로서 지난삼월에 그것을 그만둔이래 못된마음이생겨 한패를 맛나 생각하고 경부(京釜)경의(京義) 함경(咸鏡)선에서 렬차에 올라탄후 물건파는사이가 끈히잠을 자고잇는 틈을 타서 그의 주머니 혹은 돈상자속으로 부터 돈을훔쳐내는것을 일삼어 가지고 가튼방식으로 그동안 수천원의 돈을 훔친사실이 드러낫스므로 다른죄가 잇슬가하여 방금계속 문초중이다

## 電車乘客負傷

륙일오후 다섯시삼십분쯤에 교남정일백칠번지 아페서 리유성(李有成)(二三)이가 운전하든경전(京電)일백오십사호 전차와 시흥군(始興郡)에사는 박완준 (朴完俊)(三○)의 소수레(牛車)가 서로 충돌되는통에 소수레에실엇든 재목이 전차의 창을 부서트렷다 이순간에 깨여진 유리쪽이튀어서 승객두사람이 부상하엿는데 현저정(峴底町)일백칠번지 이십사호에 사는 조용옥(趙龍玉)(二○)이와 교북정(橋北町)칠번지 오십이호에사는 구태근 (具泰根)(二○)으로 전자는코에 후자는턱에 각각약일주간의 치료를요할상처를입고 서교병원에서치료를 밧고잇다

## 逃亡한 詐欺犯逮捕

시내 성북정(城北町)일백칠십구번지의 이십사호 엄귀현(嚴基賢)(三○)은 시내 효자정(孝子町)일백사십번지 정태렬(鄭泰烈)이가 경영하던 시내 내자정(內資町)사십일번지 연초소매상을 관리하고잇든중 지난 륙월칠일에 그가게돈 팔십원을 횡령도주하여버려 그동안 소관종로서에서 범인을지명수배하야 엄탐중이던바 륙일오후네시경에시내 소격정(昭格町)부근에서전긔 피해자가범인을 발견하야 종로서에 체포되엿다

## 年末警戒에 걸려든 竊盜容疑者

륙일밤시내종로서의 년말경계

# 延專硏劇部公演

## 입센記念演劇의밤! 來十一日府民館서

요사이 연극계의 일반적 침체와 아울러 학생극단체의활동은 바야흐로 긔절정으로향하려고하는차인데 그중에도 이에씨-슨의『몰』을끈 흔것은 시내연희전문학교 (延禧專門學校) 연극부(硏劇部)주최로서 본사학예부후원인『입센긔념연극의밤』이다 동부에서는 근대극의 아버지라고하는 입센의공적을 긔념하기위해서 특히『입센긔념의밤』을 가지는 동시에 상연극본도 입센의 원작인『젊은이 아이욜프』(三幕)를 상연하기로 하엿다한다 시일은 오는 십일일 오후 칠시반 장소는 부민관이데 입장료는 장내정리비로 ○전균일 이라고 한다 지금은 충분한연습도 거의다 마치고 다만『데뷰-』의첫날만을 기다리고잇는 터이나 세계적대작가의 명작이 우리의 학도들에게의해서 각광(脚光)을쏘이게되는만큼 그성과에잇서서 일반의기대는 점점고조에달하여잇다

## 한달동안에 네번出火

### 含怨者의 放火인듯?

한달동안에 네번이나 방화를당한 음식점 경기도장단군강상면구화리(長湍郡江上面九化里)음식점 오성연(吳聖淵)(四○)의 집에는 지난십일월한달동안에 집 전후에불이 붓는것을발견, 범인을찻는바엿는데 그범인은 그집고용녀 리기순(李奇順)(二○)으로 오성호(吳聖鎬)(二○)라는남자의 교사로범죄를 질렀슴이 판명되엿스며 그뒤그달십팔일에는 역시그집고용녀 박영하(朴永夏)(二○)가 주인에게 원한을품고 불부치렷고 또그달 이십일일에는 그동리 우차부(牛車夫) 김광선(金光先)(二○)이가 방화적으로불을 질럿다는것으로 전긔세번의 방화범인은모다 그곳경찰서에 붓잡혓는데 이달이일밤 열한시에 또 그집처마에 불을부친것을 꼿꼿는데 범인은아직전연히알길이 업다한다 이와가티한달동안에 네번이나방화를 당한 그음식점에서는 전전긍긍하야 단잠을 이루지못한다고한다

# 不良食料酒類等 三百餘點을 摘發

## 鍾路署管內서 檢查

칠일시내 종로서와 본정서위생계에서는 관내에잇는 각상점에서 주류와 청량음료수며우유등의불순품을 만히 압수하엿다는데 종로서에서는 백여건의불량품을 압수하엿스며 본정서에서도 우유등다수를압수하엿는데 그중에는 주류의 불순품이 상당히 만흠으로 요지음 조선주판매주식회사와 경성양조조합련합회사이에 항정문제가잇던 직후인만큼 불량한주류가 만히 잇는점을발견하고 이불량주류를 금후 엄중단속하여갈모양이라고한다

## 印章僞造

중림정(中林町)이백구번지에 사는여장사 백남준(白南俊)(二○)은 지난시월십팔일에 시내광희정(光熙町)일정목 이백○번지에서 음식점영업하는 최그래(崔○○)의집에 류하다가 고흥지전거한대를 오원에 사가지고 주인의 인장을위조하야 주인의 이름으로 잡히는마터가지고 어떤자에게 십전을 받고팔은 혐의로 적발되엿다

## 鍍金半指詐賣

삼중정(三中井)도난사건을 수사중 도금한금반지를순금반지라고하고 파라먹은자가한명 본정서에 인치되엿다 수일전부터시내화류계(花柳界)방면에 금반지를 만히 가지고 팔러 다니는 일본내지인이 잇다는 소문을 듯고본정서에서는 혹은 삼중정도난사건의 범인이나 아닌가하야 수사하든중 오일저녁 본정(本町)

# 京仁튜럭이 七十老人을 轢殺

## 京仁街道에 慘事

【仁川】경성인천간의 튜럭의왕래는 조선제일로자랑할만큼 통행이빈번하다 이와한가지로 통행인에 대한 교통사고가 비일비재하야 지난오일에도 경인(京仁)튜럭운전수조선 다이는경인(京仁)튜럭운전수 석(鎔書福)(二○)이운전하야 경성으로향하든도중 인천부영정(仁川府榮町) 일백칠십륙번지 윤영헌(尹榮憲)(七○)이와 충돌하야 그즉시 인천목리(牧里)병원에입원치료중이든바 마침지난륙일에 절명하고말엇슴으로 인천서에서는방금엄중조사중이라한다

## 竊盜豪華版

### 市內各百貨店으로 每日犯罪한 前科者

지난 오일날오후 삼중정(三中井)백화점에서 『갓쓰』를 도적질하고잇는 사람을 본정서원이발견하고 그서에인치하야 취조중이다 그는 시내필운정(弼雲町)일백삼십오번지 정오화(鄭五和)(三○)로 작년칠월 서대문형무소 (西大門刑務所)를 출옥한이래 방랑(放浪)한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시내 화신 (和信)상회 (三越)정자옥 (丁子屋) 삼중정(三中井) 평전 (平田)각백화점을 무대로 체포되든 그날까지 매일 절도를 직업비슷이하고잇섯다는데 그피해액은 수천원에달하리라고하며 근래의 절도호화판(豪華版)이라고하야 취조경관도 놀나고잇다 그리고 그는 시내 모제약사(某製藥社)사장으로 행세하고잇섯다 한다

## 世界陸上廿傑 【5】

### 1936年度

◇五千米

1、핵 트(芬蘭)一四分二二秒二
2、레히치넨(芬蘭)一四分二八秒八
3、H·운손(瑞典)一四分二九秒
4、村社講平(日本)一四分三○秒
5、살미넨(芬蘭)一四分三○秒八
6、노-지(波蘭)一四分三三秒四
7、이소호로(芬蘭)一四分三四秒八
8、빼크린(芬蘭)一四分三五秒四
9、아스코라(芬蘭)一四分三九秒
10、샤발(匈牙)一四分三九秒四
11、매키-(芬蘭)一四分四一秒六
12、세라지(伊太)一四分四五秒
13、시링그(獨逸)一四分四六秒
14、루허賞(佛蘭)一四分四九秒二
15、시르(匈牙)一四分四九秒四
16、맥라이트(米國)一四分五一秒
17、즈나멘스키(蘇聯)一四分五二秒
17、지렌-(匈牙)一四分五三秒三
19、헨스트렌(瑞典)一四分五五秒
20、A·운손(瑞典)一四分五七秒八

## 京大11 同大6

【花園電話同盟】同志社對 京都帝大의 럭비戰은 今씨-슨의全關西의霸權을 決定하는 一戰인지라 興味를 이끌은가운데 六日에 花園球場에서 別所(主)渡邊 柳(線)三氏審判아래 京大킥어프로 開始된바 前半은同點으로마치고 後半一番을 京大리-드하야 十一對六으로 京大善戰勝捷하엿다

京大11 (3―3 / 8―3) 6 同大


不老長壽 強精回春 更少年藥
百補丸
京城堅志町 平和堂 一劑十円

張彬特許 紀念京品 機銀數有限 即刻
稻毛扱機 附最新式繩機有り 打藥機
大阪西淀川區浦江中二 石橿農機製作所 電話福島四二二六番

堅實 家庭 工業
日用消耗品で內外を通じ販路廣く且收入多く宅地を選ばず單獨にても自宅にて出來る副業です 至極簡單なる仕事で少資本にても申込みに應じます 案內書呈す
株式會社 大同商事 大阪北區堀川町五五〇番

スキーポマード 艶出し

果樹苗改正價格
本年度の果樹苗は各地より注文殺到し品不足にて價格も暴騰致しましたので發表いたします
華東苗一等苗四尺以上伸切 一等苗百本 五圓五十錢
紅玉、祝、旭、倭錦 一等苗百本 五圓五十錢
國光、紅玉 一等苗百本 六圓
新紅玉、紅國光、大國光、新倭錦 等苗百本 六圓
印度 一等苗百本 六圓
デリシアス スタキング ゴルデン デリシアス 等苗百本 六圓
梨苗一等苗四尺以上伸切 長十郎 一等苗百本 四圓五十錢
早生赤、今村秋 一等苗百本 四圓五十錢
晚三吉、明月、廿世紀 等苗百本 五圓五十錢
新種八雲、バアトレット 等苗百本 五圓
石井早生 桃苗一等苗三尺以上伸切
天津、魁桃 等苗百本 七圓五十錢
橘早生、上海水蜜 等苗百本 七圓五十錢
大白、砂糖桃 等苗百本 八圓
大正早生 等苗百本 八圓
柿苗各種類三尺以上伸切
西洋李各種類四尺以上伸切 一等苗百本 三圓五十錢
櫻桃各種一等苗三尺以上伸切 一等苗百本 五圓
甘大平、富有柿 一等苗百本 四圓
禪寺丸、新平核無柿 一等苗百本 八圓
栗苗一等苗三尺以上伸切 一等苗百本 五圓
大丹波栗、中手丹波 百本五圓五十錢
銀寄、大正早生栗 等苗百本 六圓
◎其他の各果樹苗及新種類苗木は昭和十二年度發行の定價表御請求次第
◎品切ノ憂アリ御注文ハ一日モ早ク
●但シ期間中ト雖モ品切ノ節ハ御斷リ申候
埼玉縣足立郡戶塚村北 植物生產卸賣 問屋 埼玉農園 振替東京一〇五五四番

贈答品에는: 明治の菓子 明治製菓株式會社

蔘茸五淋錠
淋疾
淋疾은體質과副感染菌을따라各各다릅니다 膿淋、血淋、肉淋、砂淋、骨淋、膏淋의五淋이라하며 甲藥이乙에無效하고 乙藥이甲에不適한事實은 必要도업슴니다 本劑는人蔘鹿茸多數漢藥에强力殺菌劑의 高貴洋藥을配合하야 體質과淋菌을勿論하고偉效的의努力을가진 本劑를 試用하시요 (無代說明書進呈)
價 二圓 三圓七十錢
全國有名藥店에 無할時는 本舖에 葉書로나 振替로 注文하시압
咸興府大和町三丁目 朝鮮靈藥研究所 振替京城三三四六六番

萬腫速治
韓氏膏藥 HANSHIKOYAK
製造本舖 平壤府海岸町九十四番地 中城韓藥局



樺太廳官營 海狗腎 新品到着
明治四十四年 日、英、米、露四個國의 條約에 基한 全世界에 唯一한元素! 堂堂한實彈的眞品! 百發百中은이를두고하는말
請求하시면 無料進呈 說明書를 求하시는분은 內容을 說明書
老少를勿論하시고 陽氣업서 恨歎하시는분이여! 貴下를爲하야 補精腎氣强壯에 神奇神秘한天惠的靈効를가진 樺太廳官營捕獲眞品海狗腎이 到着하얏습니다
發賣元 朝鮮釜山府草梁町 合資會社 大洋貿易社 電話長一一八二番 振替釜山七九二二番

美孃椿香ポマード油 利潤豐富照會乞
本舖 高木大宝堂 大阪市東区淸堀町八 電話南六一五一番

## 產業

# 過剩의暗雲一掃 咸北鹽鯟에曙光

## 上海、奉天、大連、基隆等地에서 米國品을壓倒好評

咸北의 鹽鯟은 多年의 宣傳과 販路開拓에 努力한結果 近年 多少의 聲價를올리고잇는바 지난 一日突然히 上海、奉天、大連、臺灣、基隆의 各三菱出張所로부터 三菱商事淸津出張所에 「米國產鹽鯟及 樺太鯟에 壓倒되든 咸北鹽鯟이 最近 자못好評을博하야 需要가 漸增되고잇다」는 意味의 消息이잇서 業界에 喜色을 던지엇다 그러고 前記各地로부터 明年中에는 四五萬箱의 注文은 確實히잇슬豫想으로 咸北의 生產能力 一個年三萬箱으로는 到底히 그需要를 充當치못하겟슴으로 벌서부터 當地의 業者들은 增產計畫을 進行中이다 特히 三菱上海出張所에서는 淸津의 在庫品全部를 보내라고하엿슴으로 일즉이生產過剩의 傾向에잇서 苦境에서 헤매게되엿든 咸北鹽鯟業은 이로써 完全히 明朗하게되엿다고한다

# 新昌明卵豊產 七千桶突破

## 內外로販路進展刮目

【新昌】咸南新昌港은 明太魚의 豊漁와함께 明卵의 製造高가實로顯著한 數字를 示하야 지난 十一月末現在의 受驗累計量同明太子移出組合에서 調查한바에依하면 七千四百五十九桶으로 不合格百九十桶外 一等이六千二百二十四桶 二等五百六十五桶 三等四百八十桶이라는바 價格은 前年에比하야 品質優良으로 一等十一圓五十錢 二等九圓九十錢 三等七圓이라는 每桶一圓以上의騰貴好調인데 最近에는 下關方面外大阪、神戶 滿洲方面까지 漸次販路를 開拓하여가는터로 本道의 三割을 占하고잇는 新昌產明卵의 對內外進出은 매우期待되고잇다

### 婦人棉花共同耕作圃擴充

忠北道內今年度 設置의 婦人棉作共同耕作圃는 五百四十五個所를 算하야 그總面積이 百六町步 出働婦女 一萬三千七百七十九人 總收穫 十三萬二千七百十七斤 段當收量 百二十五斤의好績을示하야 그價額은 二萬一千二百三十四圓 一人當一圓六十錢가량의 收入인데 現下 農村婦女의 共同作業收益으로 相當하다고하다 그리고 一方農村婦女는 同施設에 多大한 關心을가지고잇슴으로 道에서는 十二年度에 다시 一里洞 一個所의 目標로 增設을圖하야 農村婦女의 勤勞를 助長하는同時에 棉作知識의 啓蒙指導에 努力하야 將來棉花의 集約的栽培를 婦女의勤勞에依하야 그徹底를期할方針으로 目下 各郡으로하여금 一個所一段步 一人當十坪耕作을 目標로 道內 一千四百三十六里洞에 婦人共同作圃를 設置할 計畫이라고한다

### 黑鉛統制에對하야 山野秀一氏 談

【釜山商通】朝鮮黑鉛의 販賣統制를 總督府鑛山課에서 計畫中이라는 說에 對하야 山野鑛業所主 山野秀一氏의 意見을드르면 如左하다

朝鮮黑鉛의 統制販賣案은 數年前의일로 當時反對하얏든바 最近은 아모말도 듯지못하엿다 今日은 當時와 事情도 다름으로 반드시 反對하지안는다 그러나 其統制가 如何한것인지 統制案의 內容이 不明하야 意見을 말할수업다 要는 統制案의 內容如何이다 朝鮮黑鉛의 總產額은 一萬五千乃至二萬噸이다 朝鮮의 黑鉛은 世界에 자랑할 鱗狀黑鉛인데 從來 直輸出의 길이 열리지안코 販賣上統制되지안코 業者도 不振에 苦悶하고잇섯다 그런데 朝鮮黑鉛中에도 여러가지 品種이잇서 品種에依하야 性能과 用途가 다른데 徹底的으로 朝鮮黑鉛은 目下 世界的으로 供給過多한 狀態로 新販路의擴張에 爾今多大한 苦心을 하고잇는터이다

### 朝窒肥料叺 一千萬枚買收

朝鮮窒素는 肥料用叺一千萬枚를 十日頃總督府에서 朝窒과 叺協會側間에 價格을協定키로되엿다 昨年天地兩叺을平均十八錢으로 買受하얏는데 今年도 天地를 同樣價로 買受할터이라한다

# 一萬頭目標로 緬羊大增殖計畫

## 慶北서明年부터着手

【大邱】慶北道에서는 國策에順應하야 緬羊飼育增殖의 一大計畫을 樹立하고 獎勵中인데 昭和十二年度부터 全面的으로 擴充强化策을 圖하야 一萬頭目標로 滿三個年間은 每年百十一頭式、昭和十四年度부터는 五百頭式 移入增殖할計畫이 樹立되엿다한다

### 忠北棉花出廻旺盛

忠北의 棉花出廻는 昨今旺盛하야 三日現在三百八十四萬斤에 達하야 一日 十萬斤가량의 出廻인데 五日에는 四百萬斤을突破하엿다 이모양으로나가면 計畫數量 六百萬斤에 容易하게 到達되리라하며 市勢도 滿州共販所에서 四日 一等品 斤當十九錢九厘로 今年最高價를 示하엿다

# 農家全般에 養鷄를獎勵

## 慶北의鷄卵自給策

慶北道에서는 鷄卵自給自足의 對策으로 昭和十二年度부터 養鷄獎勵를 計畫하엿다는데 現在 養鷄數는 五十六萬七千四百二十七百이며 飼養戶數는 十六萬一千二十戶인데 農家總戶數의 四十四%에 不過함으로 此計畫完了期인 昭和十六年度까지는 百%로 獎勵實行할方針이라한다

# 京畿道粟大減收

## 昨年의四割에도未及

### 隔年性結果、天候不順等이原因

京畿道의 粟生產은 年二萬餘石을 算하야 農家의 副業收入으로 輕視못할 存在인데 今年은 隔年性에 依한結果不良과 開花期의 天候不順 其他病虫害로 收量의 激減을보아 昨年의 四割에도 未及하는 狀態로 昨年가트면 道山林課에 寄託하야 共同販賣를 行하는 數量도 相當한 量에 達할터인데 今年은 寄託者가 殆無한 狀態이라한다

### 南海漁業組合 昌善支所新設

【三千浦】十一月二十日南海漁業組合에서는 昌善委託販賣支所를 昌善水山市場에 臨時로定하고 事務를 取扱하는데 從前보다는 買賣에 대단히便利하다하며 分割規定은生魚一割鹽乾魚六分으로 定하엿스며 支所役員은 다음과갓다 支所長梁在奎 仲介人林杓周 金致三 鄭準奎 金成玉 太南善 朴亨燮諸氏

# 水稻耕作年中行事

(明年度—總督府發表)

| 項目 | 北部 | 中部 | 南部 |
|---|---|---|---|
| 選種及浸種 | 四月下旬前半 | 四月中旬後半 | 四月下旬後半 |
| 苗板의整地及施肥 | 四月下旬後半 | 四月下旬前半 | 五月上旬前半 |
| 播種 | 五月上旬前半 | 四月下旬後半 | 五月上旬後半 |
| 苗板害虫驅除 | 五月下旬 | 六月上旬 | 六月上旬 |
| 綠肥作物收穫 | — | 六月上旬前半 | 五月中旬乃至六月上旬前半 |
| 裏作大麥收穫 | — | 六月中旬乃至下旬前半 | 六月下旬前半 |
| 本畓整地及施肥(一毛作) | 五月下旬後半 | 六月上旬前半 | 六月上旬後半 |
| 本畓整地及施肥(二毛作) | — | 六月下旬前半 | 六月下旬前半 |
| 移秧(一毛作) | 六月上旬前半 | 六月上旬 | 六月中旬 |
| 移秧(二毛作) | — | 六月下旬 | 六月下旬 |
| 中耕除草 | 六月中旬乃至八月上旬 | 六月下旬乃至八月上旬 | 六月下旬乃至八月中旬 |
| 追肥(硫安과過燐酸의可溶性의肥料) | 六月下旬後半 | 七月上旬前半 | 七月上旬後半 |
| 害虫驅除 | 七月下旬乃至八月下旬 | 七月上旬乃至九月上旬 | 七月上旬乃至九月中旬 |
| 稗拔 | 八月下旬 | 九月上旬 | 九月中旬 |
| 落水 | 九月上旬 | 九月中旬 | 九月下旬 |
| 綠肥作物播種 | — | 九月上旬乃至中旬前半 | 九月上旬 |
| 收穫 | 九月下旬乃至十月上旬 | 十月中旬 | 十月下旬 |
| 乾燥 | 十月上旬 | 十月下旬 | 十一月上旬 |
| 裏作大麥播種 | — | 十月上旬乃至中旬前半 | 十月下旬 |
| 調製 | 十月中旬 | 十一月上旬 | 十一月中旬 |
| 畓秋耕 | 十月下旬 | 十一月中旬 | 十一月下旬 |
| 收穫物의整理 | 十一月中旬 | 十一月下旬 | 十二月上旬 |
| 農具整理 | 十二月乃至三月 | 十二月乃至三月 | 十二月乃至三月 |
| 叺製造 | 十二月乃至三月 | 十二月乃至三月 | 十二月乃至三月 |

# 林業年中行事

(明年度總督府發表)

| 項目 | 北部 | 中部 | 南部 |
|---|---|---|---|
| 苗圃의基肥、播種 | 三月下旬乃至四月中旬 | 三月中旬乃至四月上旬 | 三月 |
| 植樹、坐蓮造成 | 四月中旬乃至五月上旬 | 三月下旬乃至四月上旬 | 三月中旬乃至四月上旬 |
| 記念植樹 | 四月十日前後 | 四月三日 | 四月三日 |
| 山菜採取 | 五月、六月 | 四、五月 | 三、四月 |
| 病虫害驅除 | 六月、七月 | 六、七月 | 六、七月 |
| 苗圃日覆及追肥 | 六月乃至八月 | 六月乃至八月 | 六月乃至八月 |
| 漆液採取 | 六月乃至十月 | 六月乃至十月 | 六月乃至十月 |
| 椎茸、松茸等菌蕈의採取 | 七月乃至十月 | 九月乃至十月 | 九月乃至十月 |
| 野生藥草採取 | 五月、八月 | 四月、九月 | 三月、十月 |
| 五倍子의採取 | 九月上、中旬 | 九月上、中旬 | 九月上、中旬 |
| 栗、胡桃그他의種實採取 | 九月乃至十月 | 九月乃至十月 | 十月乃至十一月 |
| 溫突改造 | 九、十月 | 九、十月 | 九、十月 |
| 伐竹 | — | 十一月 | 十一月 |
| 種子의貯藏 | 十月 | 十一月 | 十一月 |
| 苗의霜除 | 十一月 | 十一月 | 十二月 |
| 製炭 | 十月乃至二月 | 十一月乃至二月 | 十一月乃至二月 |
| 炭俵製作、萩細工 | 十一月乃至三月 | 十一月乃至二月 | 十一月乃至二月 |
| 山火操心 | 一年中이나特히四、五、六、九月 | 一年中이나特히三、四、五、九、十月 | 一年中이나特히三、四、五、九、十月 |

# 鑛業權設定・移動

◇鑛業權設定◇

(登錄番號 鑛種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三七二二 金銀鑛 京畿道平澤郡靑北面 十一月七日 京城府嘉會町 朴春寧

一三七二三 金銀鑛 平北義州郡玉尙面 十一月九日 京城府黃金町 義州鑛業株式會社

一三七二四 金銀鑛 江原道[illegible]郡東面、三陟郡下長面 十一月九日 東京市王子區稻付町 岩瀨亮

一三七二五 金銀鑛 江原道[illegible]郡[illegible]面 十一月九日 東京市王子區稻付町 岩瀨亮

一三七二六 金銀鑛 江原洪川郡[illegible]面 十一月九日 京城府淸進町 代表者 李秉鎬 天安郡笠場面 金◯七 水原郡台章面 朴環湯

一三七二七 金銀鑛 平北[illegible]郡西[illegible]面 十一月九日 淸原郡淸原面 代表者 朴孝遠 同 宋秉渼 同 崔元用

一三七二八 金銀鑛 忠北忠州郡仰城面 十一月九日 陰城郡金旺面 李鍾顯

一三七二九 金銀鑛 咸南定平郡[illegible]林面 十一月九日 京城府昌信町 代表者 方泰驥 定平郡長原面 李基英

一三七三〇 金銀鑛 平北楚山郡南面東面 十一月十日 京城府御成町 元胤洙

一三七三一 金鑛 慶南昌寧郡內西面 咸安郡[illegible]面 十一月十日 釜山府大橋通 船越惣太郎

一三七三二 砂金 忠南洪城郡長谷面 飛鳳面 靑陽郡化城面 十一月十日 東京市麻布區本村町 平木鹿治

一三七三三 金鑛 黃海延白郡湖南面 十一月十一日 京城府內需町 代表者 嚴柱明 延白郡湖南面 李鳳哲

一三七三四 金銀鑛 京畿楊州郡柴[illegible]面 十一月十一日 京城府貫鐵町 韓相億

一三七三五 金銀鑛 咸南高原郡水洞面 雲谷面 永興郡橫川面 十一月十一日 高城郡新北面 代表者 曾根太郎 通川郡歙谷面 [illegible] 安邊郡新茅面 張益善 同 金在學

一三七三六 金銀鑛 全南綾州郡多侍面 十一月十一日 井邑郡北面 李敎獻

一三七三七 金銀鑛 全南長城郡東化面 森陜面 十一月十一日 長城郡長城面 代表者 中原文雄 下川新一郎

一三七三八 金銀鑛 平安北寧邊郡龍山面 十一月十二日 江界郡江界邑 吳成煥

一三七三九 高嶺土 咸南咸州郡岐谷面 十一月十二日 咸州郡上岐川面 金壯鳳

一三七四〇 金銀鑛 咸南長津郡新南面 十一月十二日 京城府新橋町 代表者 朴宣卿 同峴底町 表桃花

一三七四一 金銀鑛 平北[illegible]郡古城面 十一月十三日 [illegible] 朝鮮鑛業株式會社

一三七四二 金銀鑛 全南長城郡東化面 森陜面 十一月十三日 長城郡長城面 代表者 下川新一郎 同北二面 小西きぬゑ

一三七四三 金銀鑛 平北道龜城郡館西面 十一月十三日 京城府竹添町 崔昌學

一三七四四 金銀鉛鑛 咸南長津郡新南面 十一月十三日 長津郡新南面 林在苑

一三七四五 金銀鑛 咸南高原郡山谷面 十一月十六日 京城府鍾路二丁目 代表者 吳佐殷 同大和町 川嶋眞司

一三七四六 金銀鑛 咸南北靑郡新昌面 十一月十六日 鏡城郡羅南邑 代表者 細田貞行 淸津府朝日町 四元嘉平次 咸州郡興南邑 金斗錫

一三七四七 金銀鉛鑛 忠南靑陽郡斜陽面 化城面 保寧郡靑蘿面 十一月十六日 神奈川縣鎌倉町扇ヶ谷 代表者 重松養二 東京市芝區白金猿町 河村寬裕 靑陽郡靑陽面 根本尙治

一三七四八 金銀鑛 平南寧遠郡新城面 十一月十六日 成川郡成川面 代表者 金演鎬 同上朝陽面 李七 長津郡新南面 韓裕敏

一三七四九 砂金 忠北鎭川郡萬升面 京畿安城郡二竹面 十一月十七日 延白郡延安面 代表者 上城誠次 金化郡鶴[illegible]面 [illegible]志一 鎭川郡萬升面 佐田穆

一三七五〇 金銀鑛 [illegible] 十一月十七日 [illegible] 千宗健

一三七五一 金銀鑛 [illegible] 十一月十八日 代表者 松本新一郎 金[illegible]允

# 水害義捐金

社會事業協會收合

▲七、三〇 新町自動車部運轉手一同 五〇錢 崔奎柱 申聖求 湧龍伊 金福吉 姜仁享 尹夏炳 安川 三〇錢 卜玉山 池九夫 金德俊 金漢甲 前島吉田

▲四六、六二 興南朝鮮窒素會社仕上場一同 五〇錢 李仁夏 朴東燮 金基鼎 金榮淑 吳仁玉 金東阮 朴熙麟 朱永喆 盧干萬 池雲集 吳須孫 朴秀泉 金用斌 崔元俊 鄭昌德 李信鎔 崔珍弘 韓興伏 安養民 李俊鎬 韓貞福 金榮培 李炳穆 盧信觀 鄭基鉉 金德浩 林東奎 任吉鉉 二、〇〇 任泰煥 李在雄 一、五〇 李殷鵬 崔任龍 一、〇〇 任泰煥 尹基實 朴浩鐵 金奎鎔 金鍾午 韓安述 金命山 李永華 李錫英 河用楫 朴完鎬 金善福 李亨燮 安槐植 池最弘

▲四五、七七 妙香山普賢寺 內譯 平北寧邊郡 一五、〇〇 妙香山普賢寺 二三、七七錢 妙香山普賢寺江界敎堂 一、〇〇 金海峰 講院 一、〇〇 鄭鳳海 玄德弘 金永善 李善南 李允植 普賢寺佛敎專門

▲三五、三〇 友愛會事務所 神戶市林田區御崎本町 一、〇〇 定州 金安德 金昌鎬 李浩俊 一、〇〇 申求遠 朴成大 朴鍾俊 尹周洪 南允甲 朴泰助 申熙七 黃達永 金岩佑 申鍾根 金石文 朴石錄 車敬道 崔吉振 金又生 朴守鳳 裵萬守 尹興實 朴信實 尹基俊 金明善 金末龍 李觀淳 申學生 金世甲 鄭柱讓 李應奎 申龍基 申三龍 宋周伯 金興洙 申龍基 朴英俊 林鍾斗 朴世鳳 吳甲用 田汝浩 興南支局

▲一五、〇〇 朝鮮窒素會社工作所旋盤係朝鮮人一同 內譯 一、〇〇 金壽吉 金學俊 高龍順 五〇錢 李永華 李致淳 金炳灝 元榮錫 尹辰龍 朴慶善 黃承龍 崔正敏 李庚燮 梁春山 玄宗學 金公熙 金陽洙 高義赫 文錫河 吳熙祥 文鎭範 柳仁善 崔商熙 裵興福 三〇錢 具三龍 金衛植 金泰鎬 楊枝郁

▲一七、一三 牙山支局經由 二、〇〇 朴成煥 松永岩六 洪峻燮 金東熙 柳世根 五〇錢 吳英根 孟云燮 鄭世永 吳達根 姜敬煥 金順興 全盛元 伴勇吉 成基俊 金民善 李顯周 三〇錢 洪承赫 李敏立 鄭敬朝 鄭七鳳 李在九 孟亨在 李順福 金正根 張榮吉 林昌和 全泳成 姜壽之 朴周熹 孟友燮 洪完基 一八錢 李丙姓 李達守 元鳳順 李甲在 五〇錢 洪相烈

▲五五、七九 統營耶穌長老敎會 敎員一同 朴南順 金 ▲七、〇〇 俱愛美 梁漢拿 金瑞玉 ▲二、〇〇 朴敬連 金瑞玉 容九 裵命連 丁自敬 李守學 安容鎮 秋愛德 李寸學

▲七一、六〇 大邱支局經由 二七、〇〇 進明女學校同窓會 一、五〇 進明女子夜學校 四〇、〇〇 統營基督勉勵少年會 ▲七、五〇 [illegible] ▲二〇 金命守 ▲四〇錢 李淳心 金英鎬 ▲三〇 朴斗鉉 ▲一〇錢 [illegible]

▲八六、一〇 本社信川支局經留 (八七、二一 手數料一、〇二除) 一五五 信川天主敎會 一、〇〇 信川公普校生徒一同 七、〇〇 做信學校生徒一同 八七 新幼稚園兒一同 一、〇〇 朝鮮日報大邱支局主催茂英堂水害義捐會收入 二〇、〇〇 大邱商友親睦會

▲一〇、五〇 德井支局經留 五、〇〇 鳳陽里婦人會 一、〇〇 文順興 李貞院 一、〇〇 李起聖 五〇錢 申成吉 無名氏

▲八九、〇〇 東京支局經由 三、〇〇 李光德 權聞逢 李木聖 申德 五〇 金裕恒 權斗星 片守 一、〇〇 李斗文 金生基 車載 洪金龍起 崔鶴述 諸杜相 朴學出 金仁玉 金斗植 李東性 黃淑球 金二采 姜永德 李榮鐵 李慶雨 金本正 崔元國 姜三盛 車龍根 金泰岩 鄭鳳吉 李漢榮 李快永 崔三根 李日雨 朴達實 權道俊 李命順 林淳石 韓聖雲 朴重陽 李承信 嚴成寶 五〇錢 蔡鴻錫 馬太龍 金炳河 吳正祚 權聖岩 李秉根 李敬萬 金景采 安珏 徐永壽 姜仁哲 李萬均 李鏞振 姜義燮 給金龍 李慶烈 共榮會本部 一〇、〇〇 鄭福錫 鄭張煥 五、〇〇 崔鐘漢 盧宗漢 李澤秀 鄭客煥 朴聖淑 盧成淑 姜義文 李成鵬 徐又東 金龍 朴甲永 朴基奉 鄭寅俊 盧相勳 盧相南 李大增 李晩昊 吳判石 鄭泰信 五〇錢 盧命漢 申泰英 李景英 金俊榮 三〇錢 金冰俊 金炳鋒 朴炳勳 金鍾斌 李東鎬 金再善 李鉉碩 二〇年 李在應 河元台 崔環永

▲五四、六六 東京市麻布區有志一同 內譯 一、〇〇 吳潤合 崔順祚 五、〇〇 朴奇鳳 朴甲永 吳炳浩 沈亨澤 河在甲 河順木 李鳳瑞 朴三福 金鳳基 五〇錢 朴達先 金道福 朴達先 朴日洪 朴制俊 南容鉉 朴鎔俊 朴命漢 朴炳勳 朴萬福 金三奉 河西萬 金在數 金世革 朴萬石 金亥生 金千康 金萬東 丁琪然 鄭漢相 白萬基 金萬石 金長吉

▲一一、四八 京都支局經由 在東京朝鮮人自動車運轉者同友會 一一、〇〇 石源瑞 朴成會 ▲二、五〇 松南商會

▲一二、六五 新倉監理教 一、〇〇 李秀弘 姜敬心 五〇錢 朱宮鎭 金元南 鄭福男 許敬心 李東植 金鍾孝 朱華鎬

▲六、八〇 長城支局經由分 (送料一二錢除)

▲三九、〇〇 長連支局經由 一、〇〇 朴禪緒 金聖殷 韓龍成 盧正三 谷川所長 曾成 五〇錢 金李源 洪淳澤 許均 崔祐聖 朴元夏 洪龍三 田景彩 朴千錫 洪龍錫 谷川靜江 谷川千代子 天主教會 二〇錢 全農場 五、〇〇

▲一、六〇 紅把、杏村町會 五〇錢 方泳柱 柳千壽 沈魯昶 三〇錢 朴勝麟 李恒儀

▲二〇、六二 大倧敎總本司 圖佳線東京城 一〇、〇〇 大倧敎總本司 一五〇 大倧學園小學部學生一同 一、〇〇 東京城우리少年會 尹知漢 金相準 無名氏 五〇錢 崔正宙 安道允 李沃珪 李守元 吳根泰 金宗淑 姜顯實 朴榮俊 張述龍 全礎實 李禮榮 金炳淑 崔鳳浩 林時累 金昌範 梁世俊 李昌秀 徐允淸 徐竹靑

▲四、五〇 嶺美支局經由 二、〇〇 李鼎立 協成百貨店 崔龍 朝日樂 五〇錢 權善五 李大寶 金琮成 二〇錢 安慶鳳 朴德世 金剛機械店 醫銀

▲二、七〇 東西白鶴洞 新堂町第四區 一〇錢 李相弼 金晟植 鄭萬用 洪三福 康鎭哲 鄭益鎬 池宗健 鄭斗善 金在壽 全令萬 盧炳龍 五〇錢

▲二〇〇、〇〇 朝鮮生命保險株式會社 ▲四七、二八 朝鮮生命保險會社本社中央支社南鮮支社西鮮支社北鮮支社社員一同

▲一四、一二 林口支局經由分 五〇錢 尹 金 朴成梧 無名氏 上田末松 林口旅館 平野俊治 田口善太郎 一、〇〇 金學俊 安治 ▲五六二、三〇 完豐金山 晶城郡新倉面 金永玉

▲六、一五 平壤春支局經由 素人劇上演收入中寄贈五四、四 五錢除 內譯 一〇、〇〇 平壤鮮人民會 五、〇〇 平壤春貯蓄契 李龍得 姜周興 三、〇〇 川合商會 周瑞淵 桐車 曾文印刷所 協成商會 洋行 松本洋服店 共益社 李亨來 黃金 會社 北鮮土地株式 一、〇〇 金冬澤 徐致遠 李君敏 文用石 運送部 文化堂 崔福壽 徐基昌 清昌藥局 金鐵 崔大若 金化協 正信堂時計店 丸山運送部 東洋 承園 黃泰甲 京灣洋服店 東興號支店 兄弟商會 崔承賢 高麗商店 金道熙 鄭 鐵南 杉永和 五〇錢 金五福 崔東岳 金春根 李昌鉉 金晏興 金辰龍

▲一〇八、九二 鎭南浦支局長 五〇、〇〇 共生社社長姜偉情氏 二三、五〇 共生社社員一同 一五、〇九 府外德洞監理教會一同 一、七四 同幼稚園兒一同 三、〇一 府外大英學院生徒一同 五、八一 府芝山里高東鑛外卅四人

▲一〇、〇〇 多摩川勞働者一同 東京浦田區原町 一、〇〇 金命祖 五〇錢 金邦佑 朴實植 金炳永 黃末萬 李三龍 黃太述 金鍾運 金鍾煥 金明善 金聖均 姜判金 金龍業 河興水 金泰鳳 黃孟俊 宋外守 三〇錢 車石伊 二〇錢 鄭忠錫

▲一〇、三〇 目黑方面有志一同 東京市目黑區中目黑 一、〇〇 李昭淵 韓龍洙 崔小守 五〇錢 崔正雄 林權衡 崔玉雄 朴春達 山本文吉 李述慶 劉明守 裵鍾鎬 黃在世 申景釗 三〇錢 朴實實 鄭殷鎬 黃錫源 李馬致 金錫淳 金永燮 四〇錢 朴敏五

▲七、五〇 タクシ連中一同 大連市吉野町 五〇錢 宋元泰 金鋼三 徐周鋼 楊燦燮 朴炳熙 金致洙 李德潤 金明弘 朴炳鐵 文世鍊 金學洙 文明鉉 李春淑 鄭基鉉 劉聖漢 京城勝洞禮拜堂

▲九、三〇 盲人傳道會 內譯 一、〇〇 李조화 무명씨 五〇錢 장광준 감창일 증덕조 三〇錢 전태환 류이히 김동빈 선지주 변이상 리종득

▲三一、〇〇 朝鮮佛敎中央布敎所覺皇寺 內譯 一五、〇〇 正法會一同 一四、〇〇 婦人會員一同 二、〇〇 日曜學校生徒一同

▲一八、四七 天臺支局經由 一〇、八〇 延白郡龍道公立普通學校生徒一同 七、六五 雲中里振興會員 五〇錢 徐彰鎭 徐相燦 無名氏 潘仁奎 金英鳳 朴淵珠 三〇錢 金東煥 申殷泰 金斗星

▲一二五、九五 鮮人友和會 橫須賀 一四、七〇 朝鮮人友和會 八、五〇 橫須賀海軍工廠第六船渠工事請負業者一同 一〇、〇〇 朝鮮人夫供給者一同 五、五〇 金己出 崔口晃 二、〇〇 金用雲 一、五〇 朴在允 朴在業 仙洞 一、〇〇 田淸市 角井林平 山崎雅吉 黃基 金 昌善一利 朴尙石 許宗奎 泰植 李炳敦 梁炳奎 金性元 阿 部竹右衛門 金鍾駿 金貞杓 尹 道伊 金容哲 五〇錢 金泰源 朴判壽 李德善 角谷忠五郎 田香皓 李光律 尹興奉 李五得 安藤周吉 李德善 梁守碩 林 賀 曾用俊 金海述 尹基同 鄭太永 金武甲 金昌鎬 金玉萬 權世敬 金昌鳳 兪敦益 金富榮 李德周 金昌鳳 李尙旭 朴聖熙 金貞業 趙京千 李鍾台 尹大赫 黃達周 朴時榮 文点判 姜鍾得 徐永大 金貞業 徐鍾善 崔海善 金鳳述 四〇錢 南備鳳 三〇錢 山中一郎 崔令凡 金今同 黃基憲 金九十 王命允 鈴木末吉 金文守 任斗官 柳太述 成俊伊 薛洪德 陳東武 河成洛 裵奉柏 鄭達七 張鎬順 朴命昇 姜均寬 金三同 鄭尙出 諸奉甲 林允信 金振淵 安甲烈 李甲龍 韓石順 李泰亨 秋山淸吉 洪景守 崔鳳龍 韓公紹 梁海錫 陳鳳水 崔萬興 玄伊用 林甫烈 金鍾德 裵在鳳 元齊恒 金乙用 金山仙吉 金元同 張師彥 李桂文 楊東甲 李龍道 李德權 金用伊 三〇錢 金興植 金致益 二五錢 許南洙 韓存伊 一〇錢 嚴四甲 吉田平吉 金尙治 金萬石 姜小錫 大杉秀吉 李鎭三 鄭成出 朴錫寬 村田淸吾 朴三得 劉順岩 陳景淑 金貴福 李明俊 朴義祚 金文準 朴命寬 金敏沐 李振鎬 金錫坤 鄭判錫 金守大 金元植 李快星 金小岩 張師伯 石相文 朴達根 李寶京 張悳俊 徐應大 秋田政吉 徐民大 權三語 楊王守 李 均 尹基同 黃基台 金且甲 金士萬 李相祚 宋佑立 鄭振求 韓成洛 金學龍

▲一八、五八 新義州支局經由 一〇、七五 新義州府外新明學校生徒一同 八、〇三 同新興學校生徒一同 (送料二〇錢除)

▲一〇、七〇 豐國製絲龍山工場職工一同 一〇錢 李春永 金乙鳳 金普昌 任興淳 金東翊 李方植 姜東炟 一〇錢 大山 田村二郎 石山文吉 中田 吉田 太郎 西田一郎 徐岩回 細口長 金在同 宋基學 權 本 金龍和 李斗萬 金月石 李成權 李在奉 金成奉 金千出 生 朴永根 金鍾述 金島金太郎 李乙 一〇錢 金子一郎 宋錢錦 杉山一郎 奇有實 尹周鉉 萬敬七 金長永 黃明秀 播本文吉 一五錢 上杉賢吉 李德守 今琴出 高松春 金任龍 朱台煥 權珉鉉 權中鉉 李伊文 李在鮮 金奉龍 金海述 白景得 裵文賢 金載和 金現振 劉聖西 岡本一郎 金在石 白系文 美大俊 金尙基 金鉉奎 小林一郎 木村一郎 平山一郎 金仲文 竹田 山中一郎 飯田末市 岡本淸吉 皇甫殿 金萬出 河仲石 愼三晟 田守重 山崎 金順相 朴源陽 石岩 朴敏五 金二彬 蔡春三 在德 吳判相 千仁述 鄭逸秀 金錫 崔命壽 鄭判宗 權武吉 龍業 金元瑞 鄭鍾得 李熙文 山 劉相烈 岩田政吉 吉杜永 聖玉 金元瑞 松本 薛鶴祚 壬順 李萬是 具明壽 李壬是 寅鎬 李炳琪 李康培 李康福 學奎 杉本 孫永壽 金福洙 佛伊 李守喆 李聞白 權學鉉 望月成雄 金在煥 金本四郎 郎 李在根 李鍾讚 池田 金在現 崔敏環 金錫祚 陳用凡 松岡三 金今石 河村一郎 李判龍 金鍾勳 丁未述 金正洪 片白石 安善根 權 高承昌 諸德出 尹慶鉉 崔德祚 富永十次郎 辛尙玉 朴杜俊 申在福 孫用準 金永溪 金重伊 崔芝由 朴守萬 洪孝道 白英寬 金萬守 吉 中 金明李 金經啓

一九、〇〇 聖敎會 五、〇〇 梁在昌 孝長 金 李大植 朴成龍 金杓一

# 雙虹舞

方仁根 作
金奎澤 畫

〔56〕

## 파란 (四)

「아마손님하구 정오릭형에 가게 지요」하고 주인이말하니 장경부는 눈을 떠부르드며

「정오릭짐이 다뭐야 모두뒤저 밧는데」하고말하엿다。 명월편주인은 깜작놀래며

「그럼무슨일이낫습니까 명월이 어듸갓습니까」하고황겁하게 말하엿다。

「사내놈을달고 어둘도망갓겟지」하고장경부는 말할때 그의머리에는 문득 지명수배가온 고지원의 생각이번적하고낫다。 그의 제욱감이 고지원과 고명월을연결시키어보앗다。

「흥흥! 고지원의딸이 기생이라 명월의성이 고가라! 명월이언젠가 자기아버지는 먼나라에가서 잇다고햇겟다! 형사가 오늘수상한사람이 차에서 나린것을 보앗다고햇겟다! 마침 명월은어떤 사나이와 종적을 감추엇다!」

장경부의 직업적심리에는 불이탓다。

「코리야쪼이또쿠사이소 (이겻좀 수상한데)」

하고 장경부는 속으로 부르짓고 형사와빨리거리로 나아갓다 위선 정거장에가서 표찍는역부에게 물어보앗스나 명월은 본적이업다고 하엿다。 그들은다시 자동차부로와서 물어보앗다。 운전수가 내다르며

「네 제가 명월을태워가지고 갓읍니다」하고 대답하엿다。

「어듸로?」

「구읍으로요」

「구읍뉘집에?」

「뉘집인지는 자세히 몰라도네려서 면장의 집으로가는것 가타요」

「사내와 둘이갓지?」

「네-」

「헌수룩하고 나히 한오십넘은 사람이지」

「아니오 바로져 보통학교 림선생이라는이하고 갓서요」

「림선생?」

장경부는 너무도 뜻밧기어서 놀래엇다 그러나 그들에게 무슨비밀한 연락이 잇는것이라고 단정하엿다。

「몃시쯤 갓던고」

「아홉시반쯤 되엇습니다」

「올튼"가시끼리"겟지」

「네!」

「"무카에"는 아니고?」

장경부는 잠깐 생각을 하드니 결심한듯

「자동차 둘만 지금 곳 가도록 해!— 운전수 하나는 엇가 갓븐 자네가 곡 가기로 하고 ……」말 한뒤에 비상히 긴장되여 뒤정을 짓고 와다 갓다 하며 생각을 하는것이엇다。

운전수는 자다가 말고 얼떨떨 하고 점이 나서 허둥지둥 하엿다。

「빨리해!」

「물과 기름을 좀 너어야 되겟습니다」

「왜 그런걸 미리 너놋치 못해!」하고 장경부는 메다부치듯 말하고는 형사의 귀ㅅ속에 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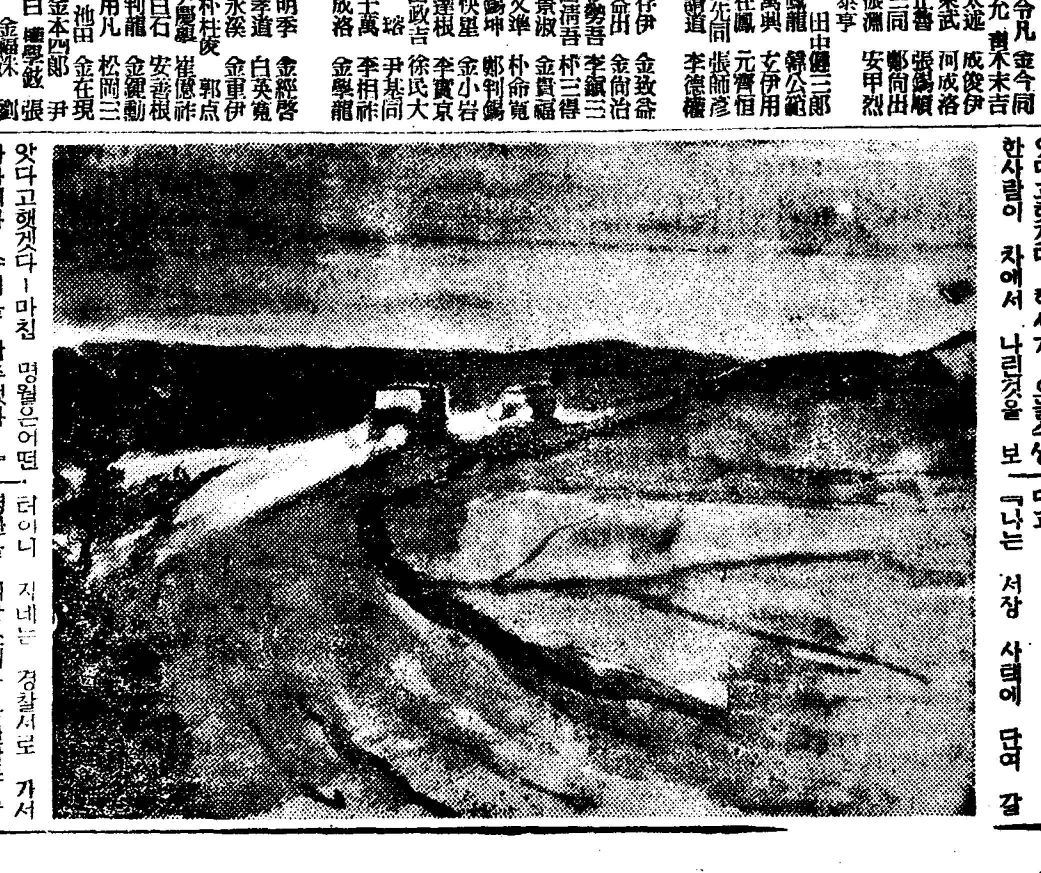
「나는 서장 사택에 단여 갈터이니 자네는 경찰서로 가서 경관을 비상소집을 하란말야 알겟지」하고 말한뒤에 운전수에게

「그럼 다 준비 해 가지고 곳 경찰서로 와!」

하고 그들은 가버리엿다。

자동차두채에 분승한 경관은 십여명이엿다。 정사복을 하엿지만 거의 무장을하엿다

고요히 잠든 꼬불꼬불한 신작로를 자동차는 몸뱀처럼 수르루 지나갓다。 읍내에 자동차가 드러갈때는 불도 적게하고 소리도 내지안코 천천히 자동차를 모랏다。 그리고 바면장의 집에서 멀리떠러잇는 동내서도 외딴 길가에 자동차를 멈추고 불을다끄라고 하엿다。 경관하나가 자동차와 운전수를 지키고 섯게 한뒤에 그들은 어두운비탈길을 살살을라갓다。 가끔 회중전등이 독가비불처럼 번적일뿐 그들은 칼자르와 총부리를 쥐고 가만가만히 발을 적어되되며갓다。 그것은 마치쥐를 잡는 고양이의 거룸과가탓다。

밤은기퍼 무덤과가티 고요하고 칼칼하엿다。 하늘의 별들만 눈을 깜작깜작 하고 나려다볼뿐이엇다。 그들은 바면장의 집 아페 다다럿다。

장경부의 지휘로 경관들은 네 좌우로 난호와 바면장의 사랑채를 둘가티 에워싸고 안채진뒤에도 경관여명이 지키고섯게하엿다。